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2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22일은 민속명절 대보름. 이때면 불교계는 전통적으로 대대적인 방생법회를 열고있다. 방생의식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자비실천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미물까지도 내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방생은 최근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어류 갑각류 조류부터 인간 방생에 이르기까지 대상과 형태 및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일체중생을 제도하려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생의 공덕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항상 방생하는 삶을…

항상 방생(放生)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畜生)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해 그 괴로움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범망경〉

온갖 중생의 생명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도움을 주려는 자애의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보살은 악한 생각으로 모든 중생을 괴롭히는 일이란 없는 터인데, 하물며 남에게 중생상(衆生相)을 일으켜 차별함으로써 고의로 살해할 줄이 있겠느냐. 〈화엄경〉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엾이 여기되, 갓난애같이 보아 다 해탈케 해야 한다. 〈태지쇄호경〉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따위의 온갖 악취에 들어가 중생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해탈하지 못한 자를 해탈케 하며, 구제되지 못한 자를 구제하며, 열반에 들지 못한 자를 열반에 들게 하며, 온갖 공포에 떠는 자를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등의 정업(正業)의 인연이 수명을 길게 하며 지혜를 자재롭게 해 주느니라. 〈열반경〉

옛날에 한 사미가 개미를 구해줌으로써 착한일을 닦은 까닭에, 그 수명이 다하도록 괴로움이 없고 몸이 편안했었으니, 복덕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니라. 〈생사득도경〉

비심(悲心)을 내어 중생을 양육해야한다. 그리하여 한날 개미까지라도 공포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이 사문의 의무이다. 〈열반경〉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법구경〉

비(悲) 심을 내어 중생을 양육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날 개미까지라도 공포에서 건져주어라. 〈열반경〉

금수 벌레 천인(賤人)중 살려주기를 바라는 자를 보았을때는 언제나 가엾이 여겨 뜻대로 먹여 편안함을 얻게하라. 〈아난사사경〉

"스님의 무소유 어디까지…"

"최소생활 개인재산 필요" 75% … "정재는 공유재산" 93%

선우도량, '삼보정재와 수행자 윤리성' 설문

현대사회에서 스님들의 '무소유'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출가수행자 개인소유를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사실은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이 지난달 5일부터 한달간 '현대사회에서의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을 주제로 수행자의 당위적 규범인 '무소유' 정신의 범위에 대한 첫 의식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대변화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5.3%로 나타났다.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 가운데 44.5%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정도'에서 사적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회사업 및 포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 25.6%, '노후생활을 의탁할 수 있는 정도'는 20.1%로 집계됐다. 이는 일정부분 사적 소유는 허용하되, 사회생활을 하거나 노후문제를 위해 종단차원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삼보정재의 소유형태는 93.4%가 공유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사설사암 또한 과반수이상(63.1%) 일정기간 경과후 공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삼보정재의 관리정도에 대해서는 75%가 '관리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그 이유로 '종단관리미비'(32.2%)를 최우선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응답자의 55.7%가 일상경비로 10만원미만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85%정도가 월평균 50만원이하를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스님들이 내핍한 생활이나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과 재가자 3백2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스님이 63.7%, 재가자가 36.3%의 비율을 차지했다. 스님의 법랍은 5년이상이 36.6%, 4년이하가 63.3%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가자의 연령별 분포는 30이상 24.4%, 29세이하가 72.8%이다.

이 조사결과는 오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상사에서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선우도량의 제 12회 수련결사에서 논의된다. 〈도필선 기자〉



전통사찰 농지취득 법제화 '난항'

농림부 반대 … 정각회 "회기내 통과 노력"

농림부가 최근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계종총무원에 농지법 개정 반대의사를 밝혀와 불교관계법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이달 중순 총무원에 개정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은 전통사찰의 복원과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농지취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회 정각회와 농림부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각회는 지난해 12월 의원발의한 전통사찰보존법 농지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보급 '청동 문수동자상' 발굴

국보급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청동제 문수동자상(文殊童子像)이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목포대학교 박물관(관장 유원적)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영암 도갑사 경내 발굴조사결과 현 대웅전 뒷편 건물지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문수동자상과 청동광배(光背), 청동쌍감(佛龕), 명문기와 등 다량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조계종 대형법회로 봄 맞는다"

26일 자비탁발 … 4·5월 행사 잇달아

조계종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18일 서울하림각에서 직할사암주지 간담회를 열고 자비의 탁발, 직할교구 합동방생법회 등 5월중순까지 1천명에서 5만명(총무원 제시 수치)이 참석하는 대형행사 계획을 밝혔다.

자비의 탁발 26일 오후1시 조계사대웅전에서 '탁발의 날' 선포식을 갖고 서울 탑골공원과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앞, 명동 상업은행 앞 등 서울 3개 지역과 대전 김천 진주 군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에 거행한다. 3시부터 5시까지는 탑골공원 인근에서는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직할사암주지 및 대중스님, 중앙승가대 학인, 신도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행사를 실시한다. 용주사 신흥사 등 19개 교구본사도 3월4일까지 각 지역별로 실시한다.

직할교구 합동 방생법회 삼짓날(양력 4월 9일)을 기해 직할교구 소속 사찰 및 용주사 봉선사 본말사 신도들이 참석, 남북통일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대규모 방생법회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현근스님은 3만~5만명의 신도를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등축제 전야 대법회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이번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조계종 주도로 치르겠다고 밝히고 예년과 달리 연등축제 전날에 대통령의 축하메시지 낭독, 3부요인을 비롯 1천여명이 참석하는 봉축전야 대법회를 봉행하겠다고 말했다.

나라 · 민족 위한 대법회 5월초 개최 예정이다. 기원법회는 지난해까지 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해 왔으나 '관변행사'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치르지 않기로 한 행사이다.

병자년 동안거 해제 월하종정 법어

風鳴什麼色 雨濕何處來
大明無私照 至公無私親
違順不倉惲 六祖不知法
竹筒盛生鐵 石火掛雨天
倉庫, 誰不見玄黃色 耳不聞緣竹聲

바람은 무슨 색이며, 비는 어느 곳으로 좇아오는가

크게 밝음은 사사로운 비춤이 없고, 지극히 공평함은 사사로운 친함이 없네

달마대사는 참선을 알지 못하고, 육조대사는 부처님 법을 알지 못하네

죽비는 생철에서 부어졌고, 돌과 불은 푸른 하늘에 걸려있지 아는가

눈에는 검고 누런색이 보이지 않고, 귀에는 푸른 대나무소리가 들리지 않네

달라이라마, 등소평 사망 애도

"티벳문제 그와 해결하고 싶었다"



오늘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이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몇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났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의무와 유관한 일에 대해서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이다.

숱한 문제를 담고있는 거대한 중국이지만 여기에도 성공과 혜택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체주의를 표방한 공산당의 지도자였다. 비록 개인적으로 선(善)을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전체주의 체제가 결정했고 수많은 과오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선(善)과 악(惡)을 따지기 전에 역사의 한 장은 막을 내렸다.

티벳문제에 관련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한 바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벳문제를 해결 못한채 끝났다. 이마 그도 이것을 안타까워 할 것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나 역시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

승려의 신분으로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저 곳으로 갈 뿐, 그가 무엇을 했던지 선(善)과 악(惡)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삶은 윤회의 법칙을 따를 것이다. 승려로서 나는 선한 환생을 위해 기도하며 애도의 마음을 그의 가족에게 전하고 싶다.

이 글은 달라이라마가 '티벳망명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9일 발표한 내용이다.

제주 법정사 10만평 성역화 15면
울주에 '매머드 불교타운' 선다 14면
사찰박물관 실태와 방향 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 · L · E · A · N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때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 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사 설

스님들의 사유재산?

선우도량이 최근 '현대사회에서의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에 대해 스님과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행자의 생활경제 해결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

오늘날 우리 승가는 무소유의 원칙과 자본주의적 경제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필품 소유라는 현실적인 갈등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이번 설문결과는 스님들의 생활비 생필품 소유정도부터 삼보정재의 관리대책까지 승가의 경제의식과 활동실상을 진단하게 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무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출가수행자들도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소유개념의 경제행위를 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즉, 스님들의 사적 재산의 소유에 대해 75.2%가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인정한다'고 응답했다. 또 스님들의 사적소유물도 64.6%가 일상생활과 노후생활을 의탁할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표출됐다.

이러한 결과는 수행자들의 기본생활과 노후 의탁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현실의 반영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되돌아보면 종래 종단이나 사찰분규가 권력과 경제적 주도권의 행사와 결코 무관치 않았던 점, 그리고 주지를 해야 경제적인 궁핍을 면할 수 있다는 일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과 노후를 위해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64.6%의 응답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무소유'의 불교전통의 경제개념이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로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나타난데는 '계율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38.2%)이라는 점도 있지만 '스님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종단의 지원이 없기 때문'(38.2%)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또 주목할만한 사항은 승가의 복지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이다. '종단에서 종책으로 책임져야 한다'(79.4%)는 응답이 가장 지배적이다.

현재 제방에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스님들의 최소의 생활과 노후 의탁등 승가복지문제는 결국 종단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리다. 출가수행자가 마음 놓고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단정책으로 승가복지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행자가 없는 교단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만큼 승가복지 실현은 중요하다.

한편 스님들의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개인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삼보정재라는 전통적 계율에 의해 사적소유조차도 승가나 사부대중의 공동재산이라는 견해(78.7%)를 보였다.

스님 개인소유와 종단 삼보정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52.3%)는 응답도 있지만 개인 사설사암일지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찰로 전환해야 하며(48.7%), 종단에 등록되어 종단에 귀속하거나(43.5%) 법인에 등록하거나(22.6%), 사부대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찰(22.3%)로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스님이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한 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있다고 본다. 승려가 개인 재산을 소유하다가 갑자기 입적하게 되면 현행 사회법상 재산상속은 승단이나 출가사제와는 상관없이, 속가 친속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삼보정재가 엉뚱하게 유출되는 사례도 간혹 있다.

스님 개인 소유물의 상속권 문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심으로 희사한 재산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삼보정재의 운용은 이번 설문 결과 나타난대로 종단에 귀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차제에 종단에서는 승려복지법과 사적재산 소유의 한계를 규정짓는 제도를 마련해 앞으로의 부작용을 막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열린마당

조계종 스님 32%만이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의지하고 있다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지관)의 설문조사결과가 교계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지 115호 1·3면 참조〉

소의경전이란 무엇이며, 이번 설문결과에 대한 반응을 스님들에게 들어본다. 〈편집자 주〉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

'금강경' 국한탈피 교학체계화

밀 원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사견임을 전제한다. 소의경전을 〈금강경〉과 전등법어에 국한시킴은 자칫 전법과 교학연구, 보살도 실천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금강경 야함경 법화경 화엄경으로 이어지는 경전체계에서 소의경전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강경의 요체는 공(空)이다. 그러나 이 경에는 공을 '불가득 불가설'(不加得不加說), 즉 얻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을 연기의 원리로 설명하는 경전이 〈아함경〉이다. 〈법화경〉은 피안에 이르러 다시 차안으로 돌아와야 함을 설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화엄경〉은 깨달음을 생활속에서 펼칠 수 있는 도리를 밝히고 있다.

나는 이 경전들을 '조계4부경'으로 부르고 싶으며, 이 경전들의 교학체계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금강경 강의 활성화 필요

지 운 〈송광사 강원 강주〉

우리나라 조계종은 조계산 육조 혜능 스님의 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다. 또한 혜능스님의 역저인 〈육조단경〉은 〈금강경〉에 대한 가장 정통적인 뛰어난 주석서로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에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소의하고 있는 스님이 32%에 불과하다는 한 설문조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 20%에 달하는 스님이 '소의경전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응답하고, 23.4%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알 지 못하고 근원을 망각하는 환부역조(換父易祖)의 큰 죄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결과는 고유의 교학전통을 무시하고 세속 학문의 잣대로 불법을 저울질하는 깊지못한 사려에서 나온 결과라 생각된다. 설문응답자의 70% 이상이 법랍 20년 이하의 소장 스님들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출가 연령과 학력이 높아진 시대적인 상황이 전통승가의 '수행'을 현대적인 '교육'으로 세속화시키는 풍토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종단도 〈금강경〉 법회와 강의를 활성화해 소의경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가해' 공부하는 경우 많아

화 선 〈불국사선원 입승〉

〈금강경〉을 소의하고 있다는 스님이 생각보다 적은 것은 〈금강경〉보다는 〈금강경오가해〉를 공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금강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충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금강경〉에 대한 선사들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금강경오가해〉를 공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금강경오가해〉가 공부나 수행에 훨씬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스님이라면 누구나 소의경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 이같은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 어느 한 경전만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의경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소의경전에 대한 체계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론이 뒷받침돼야 한다. 〈금강경〉을 소의하고 있는 스님이 적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소의체계나 소의경전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어떻게 수행하나' 더 중요

현 선 〈석림동문회·삼성암 주지〉

조계종 종헌에는 소의경전을 '금강경'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스님 개인의 성품에 따라서 다른 경전을 수지독송 할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바로 불교의 장점이 아닐까 한다.

불교에는 각자의 생활과 믿음의 대상에 따라 관음신앙, 문수보살 참배기도 등 여러형태의 기도와 예배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골라 입어야만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 수행에 있어서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고 본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마음의 편안함, 즉 해탈하는데 있는 만큼 어떤 경전을 지니고 수행하느냐보다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조계종 교학전통 따라야 마땅

종 석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4년〉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의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소의하는 스님이 32%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는 '종학(宗學)의 체계'가 제대로 전승되지 못해 나온 결과물이라 여겨진다. 종헌이 정한 소의경전을 수지독송해야한다는 필요성과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의경전에 대한 인식부족은 수행자로서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맹이 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개개인의 성격이 다르듯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종론을 무시하면 종단이 바로설 수 없듯이 조계종에 소속된 승려라면 〈금강경〉을 소의해 고유의 교학전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종단은 〈금강경〉법회와 강의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스님들은 〈금강경〉을 방편삼아 수행과 교화에 진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소의경전이란

종파의 수행요전 지칭
'금강경' 조계남종선서 유래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소의경전이란 종지종풍 확립을 위한 종파의 수행요전을 지칭한다. 한 종파에 소속된 승려는 소의경전을 독송 해설하며 수행해야 한다. 중국 선종의 경우 달마를 초조로 하므로 달마종이라고도 하며 〈능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기 때문에 능가종이라고도 하였다. 〈속고승전〉 '혜가조'에 보면 선종의 초조달마가 혜가에게 전법할 때 〈능가경〉을 함께 전해 주면서 "이 경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스스로를 깨달아 세상을 제도하리라" 하였다고 한다. 그후로 선종의 소의경전이 〈능가경〉이었다고 하며 오조 홍인이 능가변상도를 조사전의 회광에 그리도록 한 〈육조단경〉의 내용을 보아도 그때까지의 소의경전이 〈능가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육조 혜능이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홍인이 혜능에게 전법할 때도 〈금강경〉을 전해 주었다는 점에서 〈금강경〉이 선종의 소의경전으로 변신하게 되었다고 본다. 학자들의 견해로는 혜능의 제자 하택신회가 활대선언을 통하여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선종의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육조단경〉도 신회의 기록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중국선종 5파분류이전의 선종으로 조계남종선을 주로 유입하였으므로 조계종의 명칭과 〈금강경〉의 소의경전이 전통으로 전래되었다. 〈금강경〉을 주로 독송토록 한 기록은 고려시대 보조지눌의 조계산 수선사의 수행요목에 나타나 있다.

한국불교가 원효의 화쟁사상에 바탕을 둔 통불교 이념을 지향하므로 선종의 명칭하에 정토·화엄·법화·밀교 등의 수행법이 두루 혼용되고 있지만, 조계종의 소의경전이 〈금강경〉인 만큼 〈금강경〉의 보급과 독송을 종도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어

鄧小平의 좌우명

20세기의 큰별이 또하나 떨어졌다. '작은거인' '오뚝이(不倒翁)' 중국의 '마지막 황제' 등으로 불리우는 鄧小平(덩샤우핑·93)이 19일 영면에 들었다.

12억 중국인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현대 중국의 아버지'. 개혁과 개방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험에 성공을 거둔 '개혁의 설계사'.

그는 중국을 현대화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세계속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홍콩 반환 협상, 대만의 대륙 친척방문,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성사시킨 인물이 바로 그였다.

조용한 혁명가로 알려진 그는 전투에서 공을 세워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몇번씩 실각해도 때를 기다려 다시 일어섰다.

"나에 대한 평가가 과장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나의 자격이나 지위를 毛澤東(마오쩌둥) 주석위에 올려 놓는 건 더욱 원하는 바가 아니다. 명예가 높으면 높을수록 두려워 부담이 커진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간단하게 취급하고 죽은뒤의 장례식도 간단히 하도록 부탁한다."

89년 은퇴식에서 한 말이다. 얼마나 멋진가. 마치 어느 老선사의 말을 듣는 느낌이다. "내가 떠난후 사리를 수습하지 말아라. 사리탑을 세울 생각은 아예 그만둬라." "내 시신을 화장하여 인천 앞바다에 고기밥으로 뿌려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스님들의 말씀과 흡사하여 난세를 걸어온 풍운의 정치인에게서 수행승의 면모를 본다. 그는 정신과 물질을 둘로 보지 않았다.

"정신적 헌신만을 중시하고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비생산적인 관념론에 불과하다."

"부유해지고 싶은 사람은 먼저 부유해져라."

금세기 최후의 거인이 역사속으로 사라지자 세계는 동북아의 정세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도 그 영향권에 들어있다. 덩샤오핑의 좌우명 처변불경(處變不驚)은 격변속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더없는 교훈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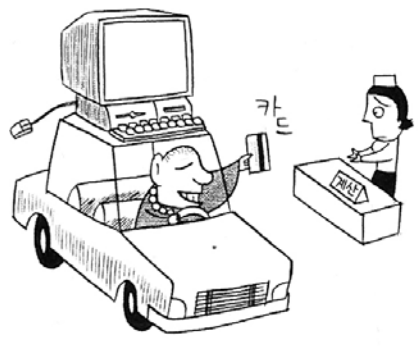
'어떤 변화가 와도 경솔하게 행동치 않고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놀라지 않겠다.' 그의 좌우명을 되새기며 고인의 명복과 세계평화를 기원하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현대만평

박구원



사회변화따라 필수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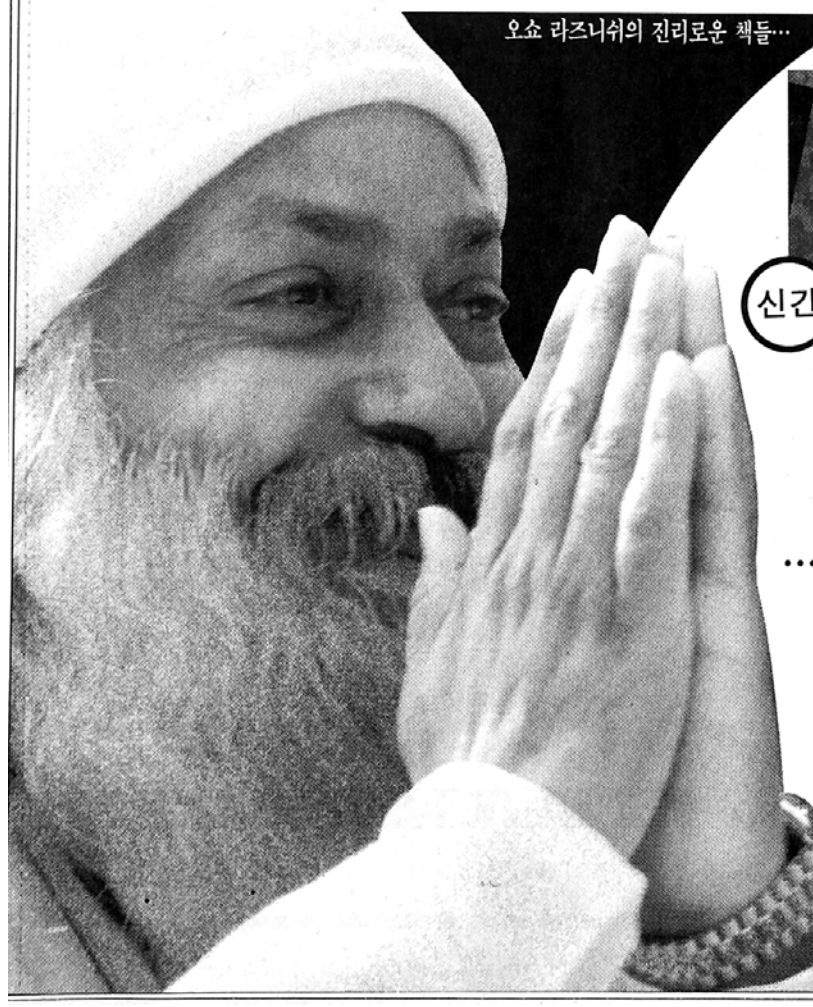
심장병·안면기형·백내장
환자가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사회

작은 정성일지라도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향기 이웃을 감동시킬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헌혈이나 감로심장회 회원이 내는 회비가 고통속에 쓰러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로심장회와 함께 사회 봉사에 동참합시다.
나와 이웃이 삶을 함께 나누는 감로심장회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의 꽃을 피웁시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사단법인 감로심장회
T. 0591)749-0106
F. 0591)747-0107





신간

살아 있는 선(禪)
– 오쇼 라즈니쉬의 〈벽암록〉 강의

성철 스님은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문제일서로 유명한 벽암록, 그중에서도 선가에서 손꼽히는 선문답을 20여 개 골라 어렵고 불분명하기만 했던 선의 세계를 오쇼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풀어헤친다.

류원장 옮김 / 380쪽 / 값 9,000원



42장경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 자신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우주적 농담, 재치 있는 예화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1권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 448쪽, 제2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40쪽
황광우·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말없는 자의 말 (양장본)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이경옥·황광우 옮김 / 176쪽 / 값 4,800원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옛 선사들의 뇌성이 있다

!

TEL : 778-6826~7 FAX : 778-6828 성하출판

시대따라 '삼의일발' 개념 변화

선우도량 '출가자 경제윤리성' 조사내용 분석

교계 최초로 실시된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는 '무소유' 정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이 승랍 4세이하 재가자 29세 이하여서 불교계 젊은층의 의식변화를 보여줘 관심을 끌고있다.

출가수행자의 기본윤리는 불교교단의 발달과정에서 삼의일발(三衣一鉢, 옷 세벌 바루 한벌)의 원칙만이 고수된 것이 아니라 6종류의 소지품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고, 8종류의 생필품을 허용한 사례도 있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에서 '일일불작 일일불식(一日不作 日一不食,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이라는 '백장청규'를 통해 노동의 대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출가수행자의 사적소유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인정돼야한다(75.3%)는 이번 설문결과는 출가수행자의 기본윤리인 '무소유' 경제관이 사회 경제환경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와관련 선우도량은 "오늘날 한국의 출가수행자들이 무소유의 원칙과 자본주의적 경제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필품 소유라는 현실적인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통적으로 출가수행자에게 무소유의 계율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오늘날 한국 출가수행자의 사적소유 범위 ▲수행생활 유지에 따른 생활비 지출정도 ▲삼보정재 관리 대책방안 등 크게 3가지 항목에 걸쳐 조사됐다. 이 결과는 오늘날 출가수행자의 경제행위 및 삼보정재 실태와 관리방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적소유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4%에 불과한 반면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에 한해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75.3%로 주류를 이뤘다. 또 사적소유를 허락하지 않고, 삼의일발의 원칙을 고수하자는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적소유는 최소한의 생필품의 범위를 정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물질문명이 팽배한 가운데에도 출가수행자들이 전통적 '무소유' 원칙을 기본적 경제윤리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보정재의 관리방법에 대해 93.4%가 공유재산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공찰의 범위를 '종단 등록(43.5%)'은 물론 '법인체등록(22.6%)'까지 포함시켰다. 또 77.8%가 스님의 입적시 사적소유물은 종단에 전부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단적으로 삼보정재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표출됐다. 이는 스님들의 노후복지나 각종 사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도 종단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출가수행자 생활비의 경우 55.7%가 일상경비로 월평균 10만원 미만을 사용, 내핍한 생활이나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32.2%로 충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일상경비는 소속사찰의 소임실비(27.7%)와 은사 및 사형사제에게 받는 보시금(29.2%)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람직한 조달방법으로 소속사찰(39.8%) 총무원(27.4%) 교구본사(21.0%) 순으로 희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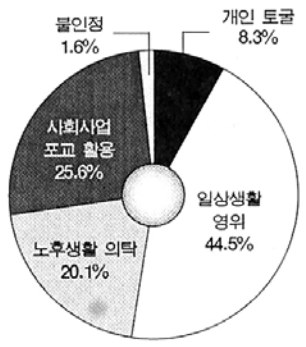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등의 소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1.7%만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을뿐 대부분은 공동소유한다는 전제하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소유기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2명 중 1명은 자동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어 그 단적인 예를 보였다. 따라서 사적소유물에 대한 종단차원의 기준마련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렇다면 전통적 의미의 무소유원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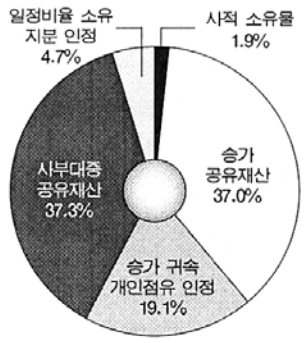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출가수행자의 계율준수 문제(38.2%)'와 '일상생활에 대한 종단지원 문제(38.2%)'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75.5%는 '출가수행자의 계율관이 해이해졌기 때문' '종단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의 이유로 삼보정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가자는 수행과 전법을 위해 소유물을 관리할 뿐이다. 따라서 출가수행자 스스로가 자본주의 경제원리의 폐단을 인식해 계율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종단차원의 중앙집중방식의 삼보정재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장치 마련이 선결 과제로 남는다.

◇사적 소유의 구체적인 범위



◇삼보정재의 바람직한 소유형태



자동차등 소유 '긍정'…"계율관 해이해졌다" 75.5%

"월생활비 10만원미만" 56%…중앙집중식 관리 요구

도필선 기자

'참희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광우 〈전국비구니회 회장·정각사주지〉

남의 죄업도 내 허물삼아

우리 절에서는 매년 정월 초3일(음력)부터 5일까지 3일동안 '양황참(梁皇懺)기도 법회'를 연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 법회는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을 의지해 제 1권 부터 제 10권까지 절하며 독송한다. 동참대중이 다함께 하다보면 회향할 때는 1천배이상 절하게 된다.

〈자비도량참법〉은 미륵부처님의 현몽에 의하여 이름지어졌는데, 중국 양(梁)무제가 이 참법을 닦아 황후 치(郗)씨를 제도해 '양황보참(梁皇寶懺)'이라고도 한다.

천년여 동안 전해오는 그 인연은 이렇다. 부인 치씨가 죽은 후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무제의 침전에 큰 구렁이가 나타났다.

"요망한 물건이 나를 해하려는 것"이라는 무제의 호통에, 구렁이는 사람의 말로 "옛날의 치씨"라며 살아서 질투하고 성품이 혹독했던 죄로 이런 몸을 받았다고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는 무슨 공덕이든 지어서 제도해 달라고 간청했다.

무제는 이튿날 스님들을 모아 구제할 방안을 찾도록 했다. 이때 지공스님이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참법(懺法)을 정성스럽게 행해야 한다"고 권했다.

무제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 불경에서 부처님 명호를 기록하고, 나아가 생각을 펴서 참회분을 엮어 열심히 예참하였다. 그후 어느날 궁전에 향기가 진동하면서 주위가 아름다워지더니 한 천인이 나타나 "폐하의 공덕을 입어 도리천에 왕생하였으며, 이제 본신을 나타내어 영험을 보인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이처럼 이 참법은 지성으로 예배하면 원하는 것은 모두 감응이 있게 된다. 게다가 세세생생 지은 나의 잘못만을 참회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잘못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게 한다. 부모 스님 스승을 포함해 육도중생을 대신해 그들이 지은 죄와 업장까지를 참회하게 한다. 그래서 보리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참법은 독송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느덧 간절한 법문 속으로 이끌어 들게한다. 그것은 글이 순박하고 꾸밈이 없으며,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상하기 때문이다.

삶이 고해(苦海)라고 생각하는 중생에게는 이 참법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 독송하기를 권한다.

모든 중생의 죄업을 내허물로 삼아 참회하는 이 참법이야 말로 갈등과 고통의 사바예토를 화합과 즐거움의 정토로 이루는 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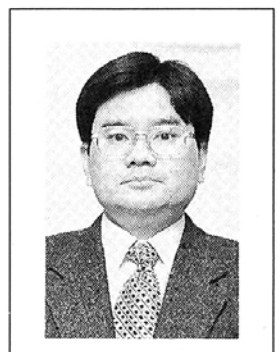
시론

탈북자 동포애로 포용

황장엽(黃長燁)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과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成惠琳)의 조카 이한영(李韓永)씨 피격사건은 북한 체제위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탈북자들에 대한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들이다.

실직·테러위협에 불안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내부의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 등으로 탈북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당간부, 장교, 외교관, 작가, 과학자, 김정일 주변인물 등 북한 고위층의 망명 도미 노현상과 광범위한 일반 북한주민들의 급증하는 탈북 등은 김정일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의 한 단면이며, 김정일정권의 체제유지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회일탈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당국의 체제관리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과 함께 체제붕괴조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고 유 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탈출한 북한주민의 수는 1천 5백~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많은 탈북자 중에서 '선택받은 운좋은 소수'만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수의 탈북자들은 북한당국의 추적을 피해 고달픈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운좋게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겪어야 할뿐만 아니라 북한의 보복테러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 탈북자들은 북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한국사회에서의 빠른 적응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생활방식의 차이와 한국정부의 탈북자 대책의 미비 등으로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한영씨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정부는 탈북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체포조의 눈길을 피해 떠돌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정치적 고려에 따라 탈북자를 수용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는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전에 인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탈북자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전원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유랑하고 있는 관련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고, 이들의 조속한 수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수의 탈북자들을 포용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역량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그 많은 북한주민을 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탈북자의 수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여 완벽한 탈북자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은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대기업 등의 민간단체 그리고 각종 종교단체 등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주민들은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교화(敎化: indoctrination)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신민(臣民)으로 주조(鑄造)되어 왔다. 수동화된 탈북자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개인주의사회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생긴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탈북자의 재사회화(再社會化:resocialization) 교육은 물론 통일이후의 남북한 주민들간의 정신적·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대비 국민의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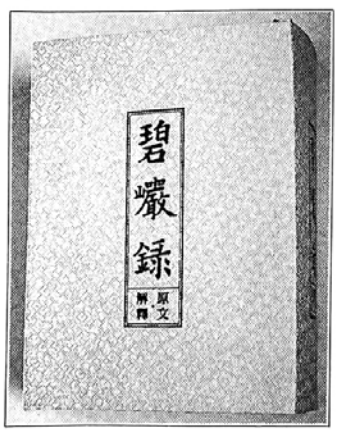
남북한 주민들간의 이질성, 즉 '서로 다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식통합작업과 재사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마련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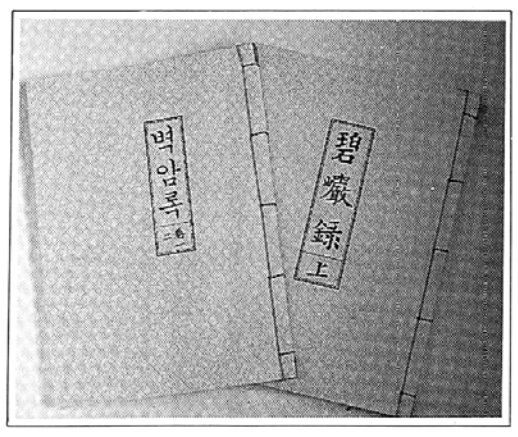
한편 우리는 탈북자들에 대한 재사회화교육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남한 주민들도 통일대비 차원의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사회화 교육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남한내부의 국민의식 개혁과 민주질서 확립 등 통합대비 내부정비라는 차원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禪書의 白眉, 禪文學의 眞髓

碧巖錄譯解

열반하신 일우스님이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혼을 기울여 필사하신것을 고급 한지에 담아 낸 소장 가치가 높은 벽암록 역해서의 완결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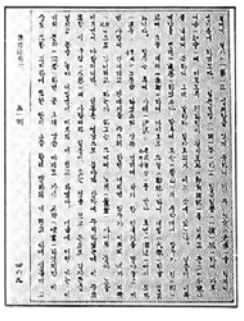


碧巖錄
: 중국 宋나라의 환오(圓悟)가 설두(雪竇)선사가 지은 송고집(頌古集)을 강설한 선수행의 뛰어난 지침서. 10권. 碧巖集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入 ● 정가 330,000원

3월중 출간예정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나 술어 故事들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를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와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쯤은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先주문시 20% 할인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738-6270, 735-7202 팩스:733-1016

법회 안내

원심선원((02)606-2153

정기법회
매월 일 오전10시30분~12시30분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안등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어린이학생법회 일 오전9시30분

광명선원(02)584-1108

산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안등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문사수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3시
거사림법회
매월 둘째주 월 오후7시30분

웅선사(02)394-9765

안등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거사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전11시
기초교리강좌 매주 월 금 오후2시
성지순례 매월 1회
철야기도 매월 셋째 토 오후9시~
다음날 오전5시 회향

문수사(051)624-3754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30분
교수법회 마지막주 토 오전10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학생회 매주 토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0431)273-6946

정기법회 둘째주 일 오전10시30분
교리법회 매주 목 오전10시30분
법형제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청년법회 매주 목 오후7시30분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4시30분
심근회법회 매월 첫째 화 오후2시
심일회법회 둘째 화 오전10시30분
심원화법회 셋째 화 오전10시30분
심선화법회 넷째 화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 거리캠페인 512,140원 △정토회 중앙사무처 1,781,590원 △청년정토회 1,074,500원 △박영구 200,000원 △김민경 100,000원 △김화영 80,000원 △이명선 48,000원 △김경희 30,000원 △윤여봉 30,000원 △노오전 20,000원 △유지영 10,000원 고경옥 10,000원

〈19일 현재 총 91,614,639원〉

- 후원금 접수 : (02)3672-5373
- 국민은행 : 818-21-0179-960 예금주 : 최석호

28년교직 정년 퇴임 김 지 견박사



"지금까지 강단에서 한국불교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한국불교의 전통과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리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전통불교연구원' 확장 제2인생 설계

지난 24일 정년퇴임한 김지견박사(65,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그동안 한결같이 주장해 온 한국불교전통을 반석에 올려 놓겠다는 한마디로 28년간 몸담아 온 교직퇴임의 변을 대신했다.

지난 79년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을 설립하고 원장을 맡아 12차례 국제학술회의를 여는 등 불교학 발전에 기여해 온 김박사는 '대한전통불교연구원' 확장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3월초 봉천5동에 새로 마련한 50평 규모의 단독건물로 연구원 사무실을 이전하고 상근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뤄 온 학문적 결과에 대한 실체적 검증을 받아 낼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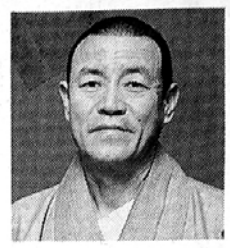
"원광대 '선무학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쓴 논문들을 모아 퇴임을 기념한 논총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선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지견박사는 70년 동국대 불교학 교수를 시작으로 대만 화엄전종학원(華嚴專宗學院)과 강원대,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를 역임했다. 역서 및 저서는 〈신라불교 연구〉〈원효성사의 철학세계〉〈불타의 세계〉 등 다수.

한명우 기자

종단협 신임사무차장 자 월 스님

"모두를 포용하는 종단화합 앞장"



"불교의 사회적 비중과 역할이 타종교에 비해 객관적으로 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의 향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입니다. 한국불교가 하나로 뭉쳐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17일 종단협의회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명된 자월스님(태고종 前총무부장, 김해 문수사주지)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이를 위한 종단의 화합을 강조했다.

"진흥회 건이 불거져나와 불협화음이 있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큰 종단은 그 위상에 걸맞는 여유가 필요하고, 작은 종단은 큰 흐름에 동참하면서 역할을 분담, 각 종단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월스님은 이어 "진흥회 측과 자주 만남을 가져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오해를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올 12월 대통령선거와 관련, "정치권의 개입을 받아들이거나, 개입의 여지를 제공하는 한 한국불교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대선중립'을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교 차 로

청소년단체협 이사 피선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스님은 지난 12일 개최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맡아



무공 동화사 주지는 지난 14일 대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대구경실련 제7차 정기총회에서 김기동씨(전 영남대총장), 김영환신부(진 효가대총장)와 더불어 상임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원효연구총서 영인본 출간

홍선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장스님은 최근 일본 高野山대학도서관 소장본 〈대승기신론별기 2권〉〈양권무량수경종요 1권〉〈보살계본지범요지 1권〉을 원효연구총서 제3권으로 묶어 영인, 출간(민창문화사 刊)했다.



'참되게 사는길 주제' 특강



삼중 자비사 주지는 26일 오후1시 과학기술원에서 '참되게 사는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불사기금마련 서화전

현덕 광주 태현사 주지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광주 남봉미술관에서 세계최대지장보살조성기금마련 서화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달마도 연꽃 반야심경 글씨 등 총 72점이 전시됐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개원

혜춘 한마음선원 경남 통영지원장은 3월 2일 오후2시 통영실내체육관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0557)43-0642

'감사와 축하의 밤' 개최



송석구 동국대총장은 오는 28일 오후6시30분부터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감사와 축하의 밤'을 개최한다. (02)260-3794

3월 수요사랑방 모임



이근후 한국석불문화연구회 회장(이화여대 의대 정신과 교수)은 오는 3월 12일 오후6시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3월 수요사랑방 모임을 개최한다. (02)760-5138

동우 장학금 전달

황명수 동국대총동창회장은 지난 24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불교학과 4학년 정일섭 2학년 정석문학생등 20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 총 2천만원의 97년도 제1학기 동우장학회 장학금을 전달했다.



차문회원 수강생 모집



갑승희 한국차생활문화원장은 오는 3월 8일 오후3시 개강하는 봄학기 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내용은 차문화사, 행다실습, 전통예절, 차밭답사 및 제다실습, 한국복식사 등이다. (02)3672-4030

호남불교대 제2대 총장 취임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광주 관음사에서 호남불교대학 제2대 학장에 취임했다.

연꽃케익 기술세미나 개최

정관수 대한불교회장은 26일 오후2시 광택 케익타운베이커리(0333-52-3314)에서 연꽃케익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졸 업 식

동국대 지난 25일 오교내 중강당에서 '96년도 학위수여식을 갖고 박사 58명, 석사 4백명 학사 3천2백90명 등 총 3천8백38명을 배출했다.

서울캠퍼스:전체수석 임창님(응용생물학과) 불교대학 윤성민(인도철학과) 공로상 유하영, 이주희(연극영화과)

경주캠퍼스:전체수석 강소임(생물학과) 불교문화대학 이경선(불교아동학과)

중앙승가대 지난 24일 정진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졸업식을 열고, 87명의 승가인을 배출했다.

이자리에서 전체수석을 차지한 혜초스님(불교학과)이 종정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또 전체차석 원경스님(사회복지학과)이 총무원장상을, 불교학과 원여스님이 총장표창을 받았다.

'보리수 마을' 정상궤도 올려놓을 터



세웅실버이사장 명 신 스님

지난 18일 시현스님의 입적으로 공석이던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명신스님(강화 보문사주지)은 "현재 10명인 이사를 15명까지 늘려 보리수마을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법인 활성화가 선결과제라며, 전종도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명신스님은 1962년 보경사에서 득도, 72년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85년 통도사 교무를 거쳐 89년 미타암 주지를 역임했다.



월주스님 불교 관계법 개정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4일 박철언 자민련부총재의 예방을 받고 불교관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부총재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불교관계법(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등)에 대해 일시국회 회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양자 부총재와 권수창의원 등이 배석했다.

'최초 항일 유적지' 후세 교육장 조성

제주법정사 성역화추진위장 이 치 근씨



"법정사를 성역화해 후손들의 산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제주법정항쟁이 '불교계 항일항쟁'이라는 역사적 규명과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데 역할을 해온 법정사성역화추진위원회 이치근위원장(서귀포 중문상고 교장)은 의욕에 차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진주스님 이영민씨 등과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항쟁 참가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과 10만평부지에 1백50억원을 투입하는 본격적인 법정사지 성역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위령탑을 세우고 민족운동의 교육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매년 10월 5일과 6일 제주법정항쟁을 재현한 만세운동을 서귀포시내에서 펼쳐 항일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법정사성역화 작업이 완료되면 관광객들의 참배코스로 개발해 보고 듣는 차원의 관광이 아닌 민족정신을 배우고 느끼는 국민정신 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주=김원우 기자

게 시 판

순례 구화산 답사=대구 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스님)과 김교각전 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 14일부터 6박7일간 지장신앙의 본산인 중국 구화산 성지순례를 떠난다.회비는 85만원, 30명모집. (053)784-3669

모집 경전연구과정=불국원(원장 이중표교수) 불교아카데미는 경전연구과정 제1기생 50명을 모집한다. 입학식은 3월 8일. (062)652-6050

강좌 성훈따주기=수효사(주지 무구) 수효문화원은 제22기 성훈따주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오는 25일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2시 무구스님 강의로 열린다. 또 찬불가와 건전가요(월), 승무(수), 사찰음식(목), 역학(금) 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02)313-3060

행사 학생회 발대식=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은 26일 오후1시30분 강당에서 '학생회 발대식'을 갖는다. 각종 자원봉사, 취미여가활동, 청소년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학생회는 학생이나 지역청소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51)361-2067

96년도판 현대불교합본집 발간

1996년 한 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을 묶은 〈96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제시해 온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96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합본집은 불교시사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그리고 신행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하시기를 권합니다.

- 수록내용: 1996년 1년분 (60호~108호)
- 가격: 5만원(우송의 경우 별도의 발송비 5천원이 추가됩니다)
  은행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현대불교)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협 053-01-227471 · 우체국 010041-0255243
- 문의: 현대불교신문 기획관리부 (02)737-8881

大學院專攻課程: ~ 불교교학 36강 ~ 알차고 체계있는 필수적 강의

佛 敎 思 想 講 座

1. 강의일시:2541('97)년3월14일 개강, 제1·3·5주 금·토 강의 금 19:00~21:00
2. 법사: 최봉수박사(동국대교수·불교원전번역연구소장) 토 15:30~17:30
3. 수강료: 1학기 15만원 ※문의요망 전화 237-4438/9

1. 부파불교의 존재
2. 삼장의 편찬
3. 아비달마 교학의 전개
4. 유부의 교학 체계
5. 남방 상좌부의 교리들
6. 중관학의 자료들
7. 팔부중도설
8. 불생불멸과 불일불이
9. 불상불단과 불거불래
10. 중관학의 역사적 전개
11. 유식학의 논서와 중기 대승 경전
12. 유식학 발생의 사상사적 배경
13. 팔식설
14. 유식학에서의 보살 수행론
15. 유식학의 역사적 전개
16. 인도 후기 대승경전
17. 만다라의 체계화
18. 삼밀작용의 수행
19. 즉신성불의 이상
20. 밀교의 역사적 전개
21. 중국불교의 교판사상
22. 법화경 사상과 천태학
23. 일념삼천설
24. 삼제원융설
25. 천태학의 한국적 전개
26. 중국불교와 화엄학
27. 사종법계설
28. 십현연기설
29. 육상원융설
30. 화엄학의 한국적 전개
31. 중국선의 특색
32. 선사상의 핵심
33. 간화선의 본질
34. 선사상의 한국적 전개
35. 한국불교의 역사적 특징
36. 현대 한국불교의 방향

佛敎 根本 5部經 特講

※아함경·반야경·법화경·화엄경·정토경

1. 강의일시:2541('97)년3월4일(화)~3월8일(토)5일연속 금 19:00~21:00
2. 법사 : 최봉수박사(동국대교수·불교원전번역연구소장) 토 15:30~17:30
3. 수강료:3만원(개강일납부) ※ 문의 237-4438/9

財團法人 呑虛佛敎文化財團
附設 三一禪院·三一佛敎敎育院
(전철3호선 약수역 6번출구 237-4438/9)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추가 및 편입생 모집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2월 17일 ~ 3월 17일
- 개강일시 : 1997년 3월 17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선법사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선우도량 제12회 수련결사

"삼보정재와 출가 수행자의 윤리성"

귀의 삼보하옵고,
불조의 혜명을 이어받아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창립된 '선우도량'의 수련결사가 '삼보정재와 출가 수행자의 윤리성'을 주제로 열립니다.

초기경전·율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긴 역사속에서 생성과 변천을 거듭해온 삼보정재에 대한 개념을 살피고, 거듭되는 부침속에서도 올곧게 출가수행자가 지킬 윤리성을 정초해오고 있는 승단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불교의 구체적 현실속에서 정진하시는 모든 참석대중들의 활발한 의견개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국 각처에서 수행정진하시는 모든 비구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앙망합니다.

- 주 제 :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
- 구 성 : 기조강연- 현해스님
  발제 1 - 초기경전·율장을 통해 나타난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
  발제 2 - 불교사속에서의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
  발제 3 - 현대사회에서의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
- 때 : 불기 2541(1997)년 3월5일 - 3월7일
- 입제시간 : 3월 5일 오후5시
- 곳 : 근본도량 지리산실상사
- 대 상 : 조계종의 모든 비구스님
- 동참금 : 3만원
- 준비물 : 대가사
- 문의처 : 실상사(0671-34-3757, 34-3591) 서울사무실(02-742-6916, FAX:742-6917)

선우도량 공동대표 도법·현봉 합장

"식물은 제몫이상 탐하지 않아요"

산문밖의 禪

식물학자 양인석 박사



'백훼초당(百卉草堂)'

혜산(慧山) 양인석박사(88·경북대 명예교수)의 집에는 위의 4자(字) 편액이 걸려있다. '백가지 꽃과 풀이 만발한 집'이란 뜻이다. 양박사의 80생애를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다. 그는 한평생을 꽃과 풀, 나무들을 사랑하며 살아왔다. 얼굴은 그 사람의 생애를 보여주는 이력서다. 양인석박사의 얼굴은 평생을 식물과 살아서인가, 미수(米壽)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봄의 들풀처럼, 가을의 풍성히 쌓인 낙엽처럼 너그럽고 맑으며 자세는 젊은이 못지않게 꼿꼿하다.

"화려한 장미에서야 누구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름모를 들풀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야말로 느끼는 사람만의 것이죠. 험한 바위틈에서도 하늘을 향해 기운찬 몸짓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식물입니다. 하찮은 듯 보이는 식물들사이에서도 오묘한 질서가 있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기의 삶을 결치지요."

산과 들을 다니다 보면 괜히 풀을 짓밟거나 나뭇가지나 야생화들을 뚝뚝 분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 생각없이 저지르는 버릇이지만 식물 입장에서는 건 생애가 걸린 일이다. 열린 마음으로 식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식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들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

양박사가 식물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수원농림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그때 일본인 우에끼선생은 일요일은 물론 방학이면 제자들을 데리고 식물채집에 나서곤 했는데 이때부터 식물에 대한 연구심이 싹튼 것이다. 그가 경북대 문리대 생물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보니 한국식물학의 낙후성이 두드러졌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료라곤 일본인교수가 총독부의 위촉을 받아 발간한 책 한권뿐. 그는 동료교수들과 함께 한국식물의 계통정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산과 들로 다니며 식물들을 채집했습니다. 식물들의 삶은 알면 알수록 저절로 외경심이 듭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절대 제몫 이상을 탐하느라 욕심부리지도 않는 평화주의자들이지요. 만물의 영장이라 뽐내지만 사실 인간이 한포기 풀보다 잘난 점이 무엇인가요. 모든 생명체는 서로 얽혀져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경북대 재직시 그는 약 2천여종의 식물표본 3만여점을 만들었다. 식물의 호적을 정리한 것이다. 셀수도 없는 풍찬노숙으로 이어진 채집여행의 결과였다. 야산에서 독사에게 물려 1주일간 병원신세를 진 적도 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손가락에 남아있다.

지난 58년 기존학계에 발표되지 않았던 신종 1개와 신변종 1개를 발견, 66년 동경에서 열린 제11차 태평양과학학술회의에 발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오산에서 발견한 털우산나물(Cacalia aconitifolia var villosa Yang)과 비슬산에서 발견한 셋뿔투구꽃(Aconitum trilobum Yang)의 학명에는 그의 이름자가 들어갔다. 식물학자로서 이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 그러나 그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식물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이름모를 장소에 피어있는 새 인연과 만났을 때의 설레임은 매번 첫 선을 볼 때처럼 가슴 두근거린다. 지난 89년 전국 최초로 팔공산에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한 사람도 바로 그다.

"여름휴가때나 가을단풍철 때는 산이 말할 수 없이 몸살을 앓지요. 인간도 부대끼면 병이 생기게 마련인데 산도 식물들도 말을 못할 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유를 찾고 휴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인간이나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이지요. 자연휴식년제는 인간위주의 사고를 탈피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관점에서도 꼭 실시되야 합니다." 그가 시작한 자연휴식년제는 큰 호응을 받아 곧 전국으로 확산됐다.

양박사는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를 수백편 읊었다. 식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야생식물과 그 식용법〉〈식물학개론〉〈백화송(百花頌)〉 등 10여권의 책으로도 엮어냈다.

그는 각급 학교에 '자연학습원' 건립을 강조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연과 대화하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자연학습원은 자연사랑, 국토사랑을 기르는 수도장이 될 수 있다. 콘크리트와 메마른 회색담 속에 갇혀 사는 오늘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은 더 더욱 필요하다. 자연학습원에서 자연과 대화를 나눠본 청소년이면 절대 비행청소년이 될 수 없다.

"요새 청소년들이 삐뚜루 나간다고 우려들을 많이 하지요. 또 자기중심적이고 예의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원인없는 결과는 없는 법입니다. 공부만을 강요당하고 폭력물과 오락물이 대부분인 TV만 보는 아이들, 뛰놀 시간없이 학원이다, 과외다 정신없이 바쁜 아이들, 양보와 사랑보다는 경쟁과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는 식의 독선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을 양산하는 잘못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자연과 대화하며 조그마한 들꽃에서 조차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심미안을 틔우는 사람은 결코 정도(正道)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확신한다. 양박사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자연학습원 역할을 산마다 있는 사찰이 해주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양박사는 31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불교 조계종 거사림회 창립회원으로 18년동안 거사림회장을 역임했다. 그에게 식물이상으로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 구산스님(전 송광사 방장)에게 받은 '심시하물(心是何物)'이라는 화두.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지말라는 뜻이지요. 원인과 해답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달마스님께서 '마음 마음 마음이여, 너그러울 때는 온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라는 말씀을 늘 되새겨 경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구=이윤호 기자

"식물과 대화 나누면 절로 겸손·평화 배워요"

자연휴식년제 도입…"학교마다 자연학습원 세워야"

마음을 몽땅 놓고 싶어요

문 스님께서는 늘상 마음을 몽땅 놓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만 몽땅 놓을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순·대전 유성구 덕진동〉

답 같은 질문에 여러번 대답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은 누가 끌고 다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각자 마음내기 이전이 생명의 근본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걸 불성이라고 하겠는데 그 생명의 근본이 있기에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도, 이 살림살이라는 것도 다 이 생명의 근본, 즉 불성이 있어서… 불성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불을 켤 수 있고 모터도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근본 부처, 본래의 자성불이 있기에 마음을 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나'라고 고집하는 그것은 다 생명의 근본에 의해 가능한 것, 즉 시자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에다가 몽땅 놓고 가라, 다 그 근본에서 나고 드는 것이니까 내가 한다 네가 한다는 그 생각을 다 맡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 가짜의 나가 아닌 근본의 나를 믿어라, 믿어야만 놓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놓을 수 있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놓아라 맡겨라 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맡긴다거나 맡기는 놈과 받는 놈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몽땅 놓는다는 게 그렇게 이치로 따져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 맡긴다 하는 것은 수행의 과정이요 방편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가 부와 자가 상봉하듯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되면 저절로 맡길 것도 맡을 것도 없는 걸 체험하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맡기는 것 받는 것이 둘이 아니라면서 맡길 건 어디 있으며 맡을 건 또 무엇이냐고 합니다. 그렇게 미리 사량으로 아는 체를 한다면 이건 도무지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참나를 발견하라는 말이 다 공염불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몽땅 놓으라는 수행방법에서 이치를 캐고 들으려 해서는 끝내 사량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학술이나 학위로 되는게 아니지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첫째입니다. 아는게 많아서 아는 것으로 따지려 하면 그만 아는 것에 딱 막혀서 공부가 안됩니다. 아는게 되려 병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까지도 몽땅 놓고가라고 했는데 부득부득 알음알이로 따지려 합니다. 마음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공부일 것 같으면 '마음이 뭐냐?' 했을 때 저 박사님네들이 가장 잘 알게요?

다 한군데서 나고 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아는 것 모르는 것, 실천하는 것 안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참구해 보세요. 건성으로 하지말고 사무치도록 말입니다.

불교가 진리라면 다른 종교들은…

문 스님께서는 "불교란 종교라고 하기 이전에 '불'하면 영원한 생명을 말함이요, '교'란 살아가는 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천주교나 개신교 등 다른 종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장인철·경주시 광명동〉

답 종교라는게 무엇입니까? 종교란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궁극에 가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자는 것이지요? 가령 어떤 종교가 진리에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떤 대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건 비록 가르침이 바르더라도 절름발이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불교'하면 영원한 생명의 도리를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수행하는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는 우리에게 참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다 하는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셨으니까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도리를 가르친다면 그 이름이 개신교든 천주교든 티벳불교든 다 가지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제대로 배우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절에 부처님을 모셔놓았는데 모두들 불상에만 매달리고 그냥 기복으로만 내닫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불상을 마당에 내려다 놓고 그냥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두들 울고 불고 야단이 났는데 같이 울면서 그걸 부서트렸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에 모셔놓고 물질만 부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자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무의 세계 무심도리와 유의 세계 유심도리를 한데 합쳐서 자유자재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불제자,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만물의 영장이라면 누구나 그러해야 하고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도덕적으로 좋고 나쁜 것은 잘 알것입니다.

자유인이라 해서 나쁜 짓을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마음도리를 알아서 대장부답게, 자유인으로서 뚜벅뚜벅 걸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란 그 무슨 종교가 되었든 이 자유인의 길을 가르칠 때 바른 종교라 할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바른불교 · 신운불교 · 생활불교를 펼치는

정토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4학기 2년 과정인 본 대학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직접적인 수행실수 그리고 불교의 사회적 실천활동을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보다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 간	요 일	시 간	차/기	교 과 과 정	
홍제대학	3월14일-7월18일	매주 금	주간.야간	4차 3기	■ 제4차 제1기	■ 제4차 제2기
서초대학	3월13일-7월17일	매주 목	주간.야간	4차 1기	● 실천적 불교사상 ● 진실한 신앙생활 ● 사원의 구조와 불교의 예절 ● 특강 : 불교와 사회(1)	● 인간붇다, 그 위대한 삶 ●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 ● 수행의 본질과 힘, 오대수행 ● 특강 : 불교와 사회(2)
성남대학	3월12일-7월16일	매주 수	주간.야간	4차 1기		
대전대학	3월14일-7월18일	매주 금	주간	4차 3기		
대구대학	3월12일-7월16일	매주 수	주간.야간	4차 3기	■ 제4차 제3기 ● 불교교학의 두가지 체계 ● 부처님나라, 인도의 불교사 ● 세계관 전환을 위한 종교론 ● 특강 : 불교와 사회(3)	■ 제4차 제4기 ● 불교의 세계적 변천사 ● 진리의 바다, 경전의 세계 ● 마음을 찾는 길잡이, 심우도 ● 특강 : 불교와 사회(4)
부산대학	3월13일~7월17일	매주 목	주간.야간	4차 1기		
경주대학	3월11일-7월15일	매주 화	주간.야간	4차 1기		

● 주간 : 오전11시 - 오후1시 / ● 야간 : 오후7시30분 - 9시30분

● 본 과정은 중간 학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원서교부 및 문의·접수처 ●●●●●

● 서울 홍제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2-379-1650-2
● 서울 서초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2-522-2841, 582-1080
● 성남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342-721-7062, 722-1760
● 대전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42-534-9166
● 대구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53-761-5970
● 부산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51-557-2746, 553-9934
● 경주 정토불교대학 / 전화 : 0561-772-1950

모집 대상 및 입학금 ●●●●

● 대상 : 누구나 다(만 19세 이상)
● 참가비 : 6만원
● 접수.문의 : 각 지역 대학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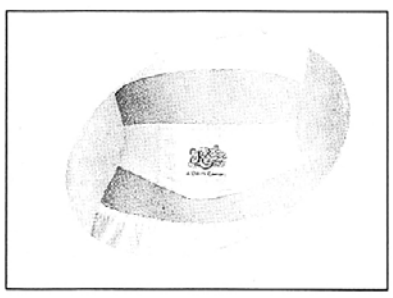
정·토·불·교·대·학

맑은 마음 / 좋은 벗 / 깨끗한 땅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60 인왕빌딩 2층
전화 : 02-379-1650-2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함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괙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려 화엄신앙 연구 획기적 자료

도갑사 문수동자상 출토 의의

청동광배(光背), 청동불감(佛龕)과 함께 발굴된 청동 문수동자상은 청동조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발굴된 것이어서 불교미술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의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발굴된 이 문수동자상은 사자위에 연화대좌를 마련하고 그 위에 앉아 있는 형상으로, 동자상은 곧추선 동체에 정교한 옷주름이 표현돼 있으며, 오른손과 왼손은 각각 무엇인가를 쥐거나 들고 있는 듯한 자세다.

당당한 자세의 사자상은 목부분에 섬세한 갈기가 조각돼 있고, 몸에는 배를 가리는 다래(障泥), 번개무늬가 새겨진 가슴걸이와 그 밑에 방울이 장식돼 있다. 또 사자 등에는 연주문과 연화문이 새겨진 하대석이 있고, 그 위에는 원통형의 중대석을 마련하고 3층 앙연의 상대석이 조각돼 있다.

목포박물관측은 동자상의 자세, 앙연(仰蓮)과 연화문의 시문 양식, 사자의 갈기, 장니나 꼬리 등에 새겨진 문양이 전형적인 고려 불상양식임을 들어 이 문수동자상이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도갑사가 고려시대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 양식이 통일신라시대나 조선시대의 양식과는 다르다는 것도 고려시대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수동자상 발굴은 문수신앙이 폭넓게 퍼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서 미술사적 가치 외에 학술적 가치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수동자는 문수보살이 형상화된 모습으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며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에게 선지식을 찾아 도를 완성토록 권하는 지혜의 좌표역할을 하고 있다. 문수동자에 대해서는 세조의 병을 고쳐 준 이야기 등 많은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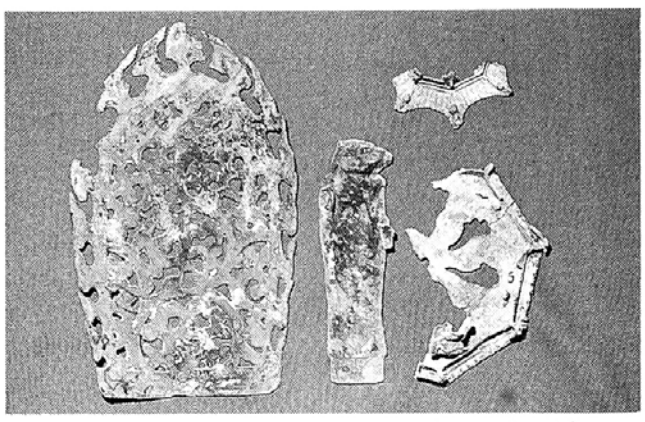
또 〈삼국유사〉 권4 · 자장정율편과 〈보살처태경〉의 '문수신변화품', 〈법화경〉 등에도 문수보살이 사자보좌로 변하거나 사자를 탄 모습이 나타나 있다.

홍윤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시대 추정은 좀 더 구체적인 확인작업이 뒤따라야 할 문제지만 고려시대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번 발굴은 고려시대 화엄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수동자상과 함께 발굴된 대형 소조사천왕상은 상당부분 파손된 상태나,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1515년경) 이전인 조선 초기(1450~70)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돼 불교조각사 연구에 획기적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성화(成化)3년'(1467년) 및 '강희(康熙)13년'(1674년)이라고 새겨진 명문기와가 출토됨으로써 도갑사가 조선전기 왕실의 지원에 의해 대대적인 불사가 이뤄졌다는 〈보유록(甫遊錄)〉 등 각 문헌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됐다.

한명우 기자



◇영암 도갑사에서 문수동자상과 함께 발굴된 청동광배, 판물, 물감.

동자상 문양·형태 전형적 고려양식
청동광배·소조사천왕상도 발굴
명문기와 '보유록' 기록 사실 입증

法數로 배우는 불교

〈6〉

일 심

불문에 귀의하여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다면 아마도 마음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사천의 가르침을 줄이면 마음 심(心)자 한 글자만 남는다고 할만큼 불교에서는 마음을 중요시한다.

타종교에서는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신이라는 대상적 존재에 기준을 두고 말하는데 비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중생들 각자가 지닌 하나의 마음(一心)에 두고 설명하고 있음을 본다. 이른바 온갖 세계는 오직 하나의 마음뿐(三界唯一心)이라는 〈화엄경〉의 말씀과, 마음은 온갖 부의 법도 유형의 법도 무형의 법도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한 마음이 기뻐 천상의 법이 나타나고 한 마음이 미혹하여 축생의 법이 나타나며 한 마음이 대립하여 아수라의 법이 나타난다.

여기에 어떻게 부처님의 법이라고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마음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활동하는 마음은 항상 어떤 인연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인연성이란 다름아닌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만나고 익혀온 온갖 살림살이 틀을 가리키는데 수행이란 이러한 자신의 마음에서 활동하는 인연성들을 곧 되비추어 즉관(卽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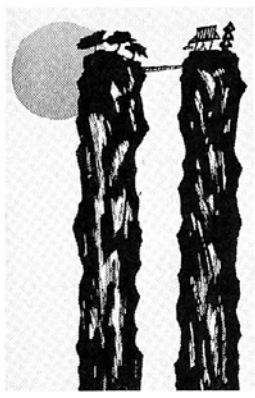
불법이 세상법과 다르지 않음도 여기에

한 마음서 만법 나와

천당 지옥 악마 부처도 내마음의 화현
대상 좇지 말고 인연 보면 참모습 찾아

것을 만드는 기술자와 같다(心如巧伎兒)는 〈입능가경〉의 말씀도 이 뜻을 잘 밝혀주고 있다. 이같은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들이 지닌 마음은 그저 알고 분별하는 인식능력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닌 만법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세계와 생명의 주체이며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불교는 자신에게 처한 행복과 불행 역시 스스로가 지은 마음의 결과로 여길 것을 가르치면서 대상을 탓하고 좇는 행위를 그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천당이 되었건 지옥이 되었건 부처가 되었건 악마가 되었건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가운데에서 나타났을뿐 마음밖의 모습으로 여기지 말것을 가르친다. 선법도 악법도 성현의 법도 범부의 법도 다름없다.



◇강행북作

있다. 순간마다 삶을 통해 발생되는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생들이 일심속의 세상법을 관조하여 부처님의 법리를 본다면 마음과 부처와 중생에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보게된다. 그래서 과거 선사들은 삼계를 벗어나는 길을 묻는 수행자에게 "삼계를 벗어나서 무엇을 보겠다는 거냐?"고 반문을 했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곳을 가르쳐 달라는 수행자에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곳을 가려면 춥고 더운 곳으로 뛰어들라"고 가르쳤다. 오로지 용맹심을 가지고 일심속으로 뛰어들어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수행불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봉정사 국보급 후불벽화 훼손위기

기둥부식 대웅전 기울어

국보급 후불벽화가 발견(본지 112호 1면 참조)된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이 기울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벽화훼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정사에 따르면 대웅전 내부 왼쪽 기둥이 나무의 퇴락으로 인해 2도 정도 기울고 있다는 것. 또 기둥 윗부분인 공포(전통 목조건물에 쓰이는 조립부분)가 10㎝가량 벌어졌으며, 벽화를 지탱해주고 있는 기둥도 기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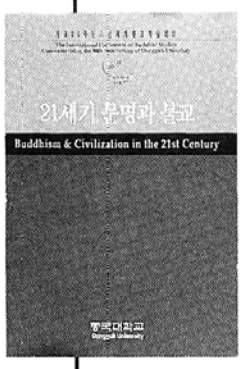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 문화재관리국에 긴급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은 "이는 종합적 검토를 거친 후 문화재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보수·보존처리 등 다각적 방안이 수립돼야 할 사안"이라며 보수 및 보존처리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동국대 '21세기 문명과 불교' 출간

개교 90돌기념 국제학회의 발표논문 20편

동국대는 지난해 10월 개교90주년을 기념해 개최했던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한 세계불교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묶은 책자를 발간했다.



세계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불교적으로 조명하고 21세기를 향한 한국불교의 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던 학술회의의 내용을 담은 이 책자는 7백쪽의 분량으로 학술대회 주제인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표지어로 삼고 있다.

'21세기 문명과 불교' 학술대회에서는 '21세기 문명론의 불교적 조명' '종교다원사회와 불교' '지구화시대의 사회윤리와 불교' '자연, 환경, 생명과 불교' '한국불교의 세계화' 등 다섯가지 주제에서 다시 각 분야별 2개 소주제에 대해 국내외 학자 각 1명씩 발표한 바 있다.

이 책은 송석구 총장의 '21세기 문명과 불교' 기조연설문을 비롯해 '포스트모더니즘과 불교'(김용정) '정보문명론과 불교'(마츠모토 시로) '불교와 기독교'(레오나드 스위들러) '종교다원주의 불교적 조명'(윤이흠) '대승불교와 사회정의 구현'(로버트 써만) '환경문제와 불교적 조명'(호진스님) '한국불교의 세계화:종교적 성찰'(박성배) 등 국·내외학자 논문 20편이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번역돼 실려있다.

"禪사상은 미래인류문명 원동력"

이은윤씨 하나로포럼서 '21세기와 선정문화' 발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선정문화' 활용전망 밝아

하·나로포럼선정회(상임대표 고준환)는 26일 오후 5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 2차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은윤씨(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가 '21세기와 선정문화'에 대해 발표하고, 선정문화의 대중적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이은윤씨는 발제문을 통해 "선사상은 '발상의 전환' '구조개편' '유행파괴' 등 현대문명의 변혁을 밑받침할 기본사상으로 부상, 전세계적으로 폭넓게 조명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선불교는 출세간주의를 입세간주의(入世間主義)로, 성(聖)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끌어내린 생활불교이며 민중불교, 실천불교라고 정의했다.

또 선(禪)은 종교적으로 선불교, 사상적으로 선사상, 학문적으로 선학이라고 불리고, 다른 사상과 종교와는 구분되는 단순성과 직관성 일상성 실천성 혁명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씨는 세계적인 열풍이 일고 있는 선의 연구와 조명은 선사들의 어록을 중심으로 한 조사선의 '선사상'이라며 선정과 조사선의 선이 갖는 차이점을 조명했다.

"선의 핵심은 일체의 법과 더불어 살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씨는 선불교가 민족성과 부합해 한·중·일 3국의 선(禪)문학, 선화(禪畵), 다도, 근로철학 등의 독특한 선문화를 생성, 발전시킨 점을 들어 선정문화의 대중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선문화를 중심으로 한 자연친화주의적 경향이 우리나라 아파트건설에서 새롭게 등장, '자연친화'적 주거문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일례는 큰 공감을 얻었다. 이씨는 또 "선사상이 정신분석학, 스포츠, 심리학 등의 형태로 미래사업으로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씨는 결론에서 "분석적 경영보다는 직관경영, 미시적 경영보다는 거시경제가 우선적 가치를 갖게될 미래에는 그 시대를 이끌만한 인류사상으로 선사상이 최적"이라고 말하고 "선사상과 선정문화가 미래 인류문명의 원동력임을 인식, 초종파적으로 연구하고, 대중적으로 회향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필선 기자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 포고사도 가능)
	4년	•통신 8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95% 취업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3월5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2026~8 광주 삼복서적: 222-025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제일서림: 424-0801, 대전문경서적: 252-8558
마산학문당 : 46-2925, 인천 대한서림 : 762-7337
김해 오복당 : 36-2105, 전주 홍지서림 : 88-531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불교전문 지도자(유발승려)교육생모집

1. 설립이념

본교육원에서는 현실에 맞는 실천불교, 체험불교, 생활불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지도자(유발승려)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불교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전문 종교인으로서 가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 : 1년
교육과정 (※ 자세한 교육과정 내용은 설명회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불교학	종교학	포교학	불교의식(집전)	복지학	상담심리학	명리학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 원 자 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 형 방 법
지도자과정 30명 일반과정 30명	불자 고등학교 졸업, 38세 이상의 남·녀	입학원서 1통 본관 소정 양식 1통	원서교부 : 97년1월10일 ~ 2월 28일 접수 : 3월1일 ~ 3월 10일(전형료 15000원)	면접 및 서류전형 공·사 기업체 명예퇴직자 우선전형

4. 특전

▶ 본원 졸업(전문지도자 과정)수계 후 유발승려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원이 소유한 사찰 및 포교원 원장에 발령 임명함.
▶ 본원졸업(일반과정)수계후 법사자격 부여 본원 포교사 임명
▶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본원과 자매 결연한 해외 종교 기관에 특별 연수

※ 교육과정 설명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본원
대표전화 : (02) 423-1800

우리불교 마음의 절 부설 : 불교전문 지도자 교육원
불자가정 부처님 모시기 운동본부

"불교역사 알리고 전법의 場으로"

'97 문화유산의 해

사찰박물관 실태와 방향

사찰박물관은 성보를 전시·보관하고 있으며, 불교역사와 부처님 사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박물관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몇 안되는 사찰박물관의 실태는 어떠하며, 새로 건립되는 사찰박물관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이에 대한 방안을 짚어보고 전문기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현재 사찰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문체부가 인가(관람료 징수 박물관)한 통도사, 직지사를 비롯해 유물관 형태의 대흥사, 해인사, 표충사, 송광사, 월정사, 기립사 등 모두 8곳. 또 올해와 내년중 일제히 개관할 박물관은 마곡사·수덕사·금산사·선운사·용주사·선암사·은해사·옥천사·흥국사 등 9곳으로, 사찰박물관은 모두 17개로 늘어나게 된다. 해인사·월정사·대흥사는 기존 유물관이 있으나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한다.

87년 문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80평 규모의 박물관 문을 연 통도사는 94년부터 연면적 1262평의 신규 박물관을 건립, '불화(佛畵)전문박물관'으로 내년 4월 관람객을 맞는다. 60여평 규모의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관이나, 중흥조인 희랑대사와 사명대사의 유물을 간직한 해인사 유물관, 대부분 사명대사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표충사 유물관도 특화된 전문유물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 사경·전적류와 탱화 등을 구분해 전시하고 있는 기립사 박물관 역시 사찰 특성에 맞는 전문박물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96년 문체부로부터 전문 박물관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3월 개관하는 직지사 박물관은 1백여평규모에 160여점의 성보를 전시해 놓았다. 직지사는 사찰박물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본·말사 성보 1천여점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 박물관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새 박물관을 마련중인 송광사는 150평 규모의 2층 목조건물을 계획으로 지난해 착공, 올해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동와령(국보 제176호)등 3백여점의 성보를 전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의 박물관들은 사찰박물관으로서의 기능 및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로 건립될 박물관을 포함, 다각적인 개선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인력의 배치다. 현재 학예연구관을 두고 있는 박물관은 통도사와 직지사 두 곳 뿐이며, 대부분 박물관이 인력부족으로 운영에 필수적인 기초자료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박물관의 다기능화이다. 박물관 건물에 수련관, 세미나실 등을 만들어 신행활동·학술대회 개최 등 일반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3월 착공하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의 경우 이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섯째, 화재방지나 온·습도 조절 등 박물관이 지녀야 할 기본조건 완비다.

화재방지에는 콘크리트건물이 좋으나 온·습도 조절에는 목조건물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찰과 박물관을 조화롭게 연계시켜 사찰 전체가 박물관임을 인식시켜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사찰박물관이 운영난에 허덕이다보니 전문 연구관은 고사하고 관리인조차 제대로 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원마련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해당 박물관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 및 박물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한명우 기자

〈현 성보박물관 및 유물관〉

구 분		개관	규모	소 장 유 물	전문가 여부	비 고
박물관	통도사	87년	1262평(신)	문수보살최상승무생계경(보물738호) 등 6백여점	학예연구사 1명	98년 4월 새박물관 개관 예정
	직지사	97년	100평	금동육각사리함(국보208호) 등 6백여점	〃	올 3월 개관
유물관	송광사	62년	150평(신)	목조삼존불감(보물42호) 등 3백여점	없음	새박물관 연내 개관 예정
	해인사	67년	67평	목조희랑조사상 등 2백여점	〃	성보박물관 새로 건립중
	월정사	90년	20평	육수관음상 등 2백여점	〃	〃
	대흥사	79년	60평	탐산사동종(보물88호) 등 2백여점	〃	〃
	표충사	90년	90평	청동함은향완(국보175호) 등 3백50여점	〃	대부분 사명대사 유물
	기립사	91년	70평	건칠보살좌상(보물415호) 등 7백여점	〃	보물관·성보관 2개동으로 구성

〈건립예정 성보박물관〉

사 찰	건립규모	기공일자	완공예정
마곡사	108평	97. 3월	올해 말
*월정사	200평	96.12월	〃
수덕사	200평	96.12월	〃
금산사	120평	97. 3월	〃
*대흥사	150평	96.12월	〃
선운사	250평	97. 3월	〃
*해인사	500평	97. 3월	〃
용주사	100평	97. 1월	〃
은해사	200평	96.10월	〃
옥천사	180평	96.12월	〃
선암사	200평	97. 5월	98년
흥국사	미정	미정	미정

*표는 기존 유물관을 박물관으로 확장 건립.

통도·직지사등 현재 8곳 운영…올 9곳 완공
유물보관보다 전문성 살려 교육기능 보완

사찰박물관 건립 이렇게…

주변환경 조화 최우선 과제

멀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

사찰박물관은 그 자체가 예배대상인 동시에 예배공간이 돼야 한다. 전시유물을 보여주는 단순한 기능에 그쳐서는 안된다.

공간설계 및 박물관과 관련한 충분한 홍보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비록 내부공간의 현대적 설비가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사찰 주변공간과의 조화를 모색한 건립이 바람직하다.

스님들 문화재 이해 높여야

강우방〈국립경주박물관장〉

사찰박물관이라 하더라도 온·습도 등 박물관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조건을 완벽히 갖추어야 한다. 사찰유물은 도난의 우려가 크므로 보존상의 문제점 고려도 필수적이다. 사찰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은 무엇보다도 스님들의 사찰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하는 문제다.

불교중앙박물관 '당면과제'

문명대〈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장〉

수장고, 전시실, 보존처리 등 박물관 기본설계에 충실해야 한다. 여기에 포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시기법이 동원돼야 하며, 이를 기획 관리할 전문인력 및 전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교중앙박물관 건립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동국대 박물관과 연계한 건립도 고려할만 하다.

사찰특성 따른 전문화 필요

이기선〈불교조형연구소장〉

김치박물관, 농업박물관 등 근래들어 박물관은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다. 사찰박물관의 경우도 그 자체가 전문화된 것이다. 그러나 통도사 박물관이 불화(佛畵)전문박물관을 표방했듯이 사찰박물관도 해당 사찰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수적인 팽창으로 인한 운영상의 부실이 염려스럽다.

나의 수행일기

김동확 〈이리봉사선과의원 원무과장〉



"경험토대 청년들에 교리공부 권유"

여러 종교서 느낀 회의 불법귀의하니 없어져

1950년대 중반 무렵 나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에 빠져 전북지역의 통일교의 확산 전도를 위해 철야기도를 밥먹듯 했었다.

그러다가 차츰 그 열성적이던 통일교와의 인연을 끊게 되었다. 그로부터 수년동안에 걸쳐 종교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을 갖고 원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많은 종교를 경험하였다.

그러던중 나의 어머님께서 별세를 하셨다. 어머님이 생전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하시던 모습을 새삼 깨달았던 나는 위패를 연국사에 봉안했다.

연국사에서 사십구재를 모시는 동안 나는 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불교에 대한 호기심으로 각종 불교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또 당시 이리시에 불교교양대학이 설립되어 집사람과 함께 불교교양대학에서 1년간 교리공부도 했다. 교양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부처님은 이미 이천여년전에 벌써 우리가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천문학을 꿰뚫어 보셨던 대과학자이셨으며 의학을 비롯한 농학과 이학 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달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다. 모든 사물을 깊이 통찰하셔서 무명의 중생들에게 자비광명을 비치게 해주셨던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서 나는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후에 나는 다시 법사과정을 공부했다. 법사과정 공부를 하며 미천하고 부족하기 이를데 없는 나 자신이지만 낙후한 전북지역의 불교발전을 위해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겪더라도 후배들의 양성과 포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나는 그러한 책무를 느끼며 여건이 허락되는 한 청년불자들과 함께 신행활동을 펼쳐야 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등을 찾아 다녔다.

청년불자들을 만나면서 올바른 신행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불교교리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교교양대학에 입학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내가 예전에 그랬듯이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불교가 발전하기위해서는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3년전부터 대불청회원들과 불교홍보를 위한 권선문도 만들어 이리 익산지역 관내 사찰을 돌며 직접 배포하고 지역불자와 스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활동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역불교계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불자포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에도 열심히 청년불자회원 배가를 위한 포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부터는 원광대학교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법회도 하고 그들의 신행활동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다.

대학생불교학생회를 지도하다보니 대학시절에는 신행활동을 열심히 했던 청년법우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점점 신행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을 다독거리고 법회를 이끌어 내야 할때도 많았다.

그럴때면 최고학부를 나온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생활에 응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가르침 그대로 먼저 불법을 믿고, 그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는 마땅히 가르침에 의지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실천행을 닦아야 하는 것이 불자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나는 패기넘치는 청년불자들과 함께 전북지역 불교포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3년과정)

97학년도 동산불교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불교전문 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보살도를 중생속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저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2. 교과목 및 교수

경전과정(매주월요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화엄경입법계품	1학기	금강경	1학기	화엄경 Ⅰ
	2학기	이참경 Ⅰ	2학기	중 론	2학기	불교미술
응용과정(매주화요일)	1학기	비교종교 · 명교	1학기	법화경 Ⅰ	1학기	화엄경 Ⅱ
	2학기	이참경 Ⅱ	2학기	법화경 Ⅱ	2학기	포교방법론

· 우전정 스님(연구원원장) · 박종 교수(한국인성개발연구원장)
· 증범 스님(승가대 교수) · 종석 스님(승가대교수) · 오점근 교수(동국대 교수)
· 권기종 교수(동국대 교수) · 원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 정취욱 교수(전동국대 교수)
· 권탄준 교수(동국대 교수) · 진병조 교수(동국대 교수) · 김태석 교수(동국대 교수)
· 원정섭 박사(삼학장원장) · 서윤길 교수(동국대 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개 강 일 시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30명) 동산반(30명)	①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포교사 취득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반명함판사진 3장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지기소개서 1통	97년 2월 1일 ~ 3월 1일(토) (서류전형)	97년 3월 3일	매주 월 · 화요일 오후7시~9시 (본연구원 법당)	동산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자인 지원가능

4. 개강일시 — 1997년 3월3일(월), 4일(화) 오후 7시

5. 입학금 — 일십만원

6. 졸업자격 — 경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 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전문법사)을 수여함.

7. 원서문의 교부 · 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문의전화 : (02)732-1206~8, 722-0408/Fax:732-1207)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1997년도 도시생활 포교사를 위한(1년 과정)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중 · 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한 불교의식의 숙달로 생활 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3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7년 3월 8일 (토) 3시
지도법사 : 권지흥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상반기)	한글불교의식 Ⅱ(하반기)
●이침 · 저녁으로 해오하는 예경의식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 …… 장엄염불	●백일 · 돌 ·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 …… 일반의식 ●장례의식(2) …… 임종 · 매장 · 화장의식 ●새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장	97년 2월 1일(토) ~ 3월 7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3:00~4:30(동산법당) (본연구원 법당)

5. 입학금 — ●일십만원

6.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732-1206~8/FAX : 732-1207)

7.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무상품(無常品) ①

睡眠安解寤 수면해오
宜歡喜思 의환희사
聽我所說 청아소설
撰起佛言 찬기불언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어
부처님 말씀으로 기록하라

所行非常 소행비상
謂興衰法 위흥쇠법
夫生輒死 부생첩사
此滅爲樂 차멸위락

이 세상 모든 일엔 끝이 있어
한번 일어나면 반드시 스러지는 법
태어난 것은 이내 죽음에 이르니
적멸로 즐거움을 삼아라

譬如陶家 비여도가
挺埴作器 선치작기
一切要壞 일체요괴
人命亦然 인명역연

마치 저 옹기장이가
천이나 백중에 하나도 아니고
성 받이 모든 남녀는 누구나
재물을 쌓고 모으지만
스러지고 망하지 않는 것은 없다

生者日夜 생자일야
命自攻削 명자공삭
譬之消盡 수지소진
如渠竭水 여영정수

태어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목숨을 스스로 치고 깎으니
수명은 차츰 차츰 닳아 없어진다
마치 옹달샘이 졸아드는 것같이

常者皆盡 상자개진
高者亦墮 고자역타
合會有離 합회유이
生者有死 생자유사

오랜 듯해도 다 사라지고
높은 듯해도 다 내려선다
만남과 모임엔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엔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

衆生相剋 중생상극
以喪其命 이상기명
隨行所墮 수행소타

"만남과 모임엔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엔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

촬흙을 개어 그릇을 빚어내어도
마침내 모두 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러하도다

如河馳史流여하사류
往而不返 왕이불반
人命如是 인명여시
逝者不還 서자불환

또한 저 강물이 급히 흘러
한번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인명도 그와 같아서
한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譬人操杖 비인조장
行牧食牛 행목식우
老死隨然 노사유연
亦養命去 역양명거

소치는 이가 막대를 쥐고
소를 부려 먹이듯이
늙음과 죽음도 그와 같아서
사람의 목숨을 기르며 몰고 간다

千百非一 천백비일
族姓男女 족성남녀
貯聚財產 저취재산
無不衰喪 무불쇠상

自受殃福 자수앙복

중생은 서로서로 으르렁대며
그러다가 제목숨 잃기도 하는데
저지른 일따라 떨어질 곳 있으니
스스로 재앙과 복을 부르네

老見苦痛 노견고통
死則意去 사칙의거
樂家縛獄 낙가박옥
貪世不斷 탐세부단

늙어서는 고통을 맛보다가
죽으면 곧 의식이 떠나건만
제 집살림 즐기느라 스스로 갇혀서
세속 탐하기를 그치지 않네

嗟嗟老至 돌차노지
色變作耄 색변작모
少時如意 소시여의
老見踈籍 노견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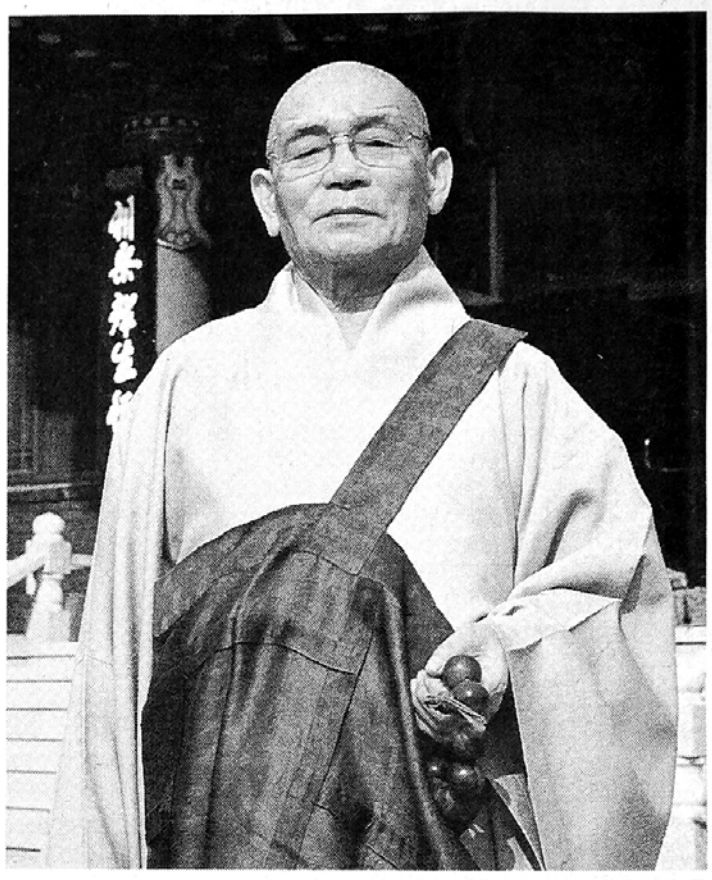
어느덧 이 몸 늙고 늙어
형색은 변하여 백발이 되매
젊은 날 뜻맞게 되던 일도
업신여겨 짓밟히는 꼴이 되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 비우면 비울수록

화 산 스 님 〈대구 보광원 조실〉



약력
- 1919년 경남 양산 生
- 17세때 허몽초스님을 은사로 득도, 방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일본 임제선문학교 졸업
-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통도사 강주 역임
- 現 밀양 표충사 조실
  양산 천불사 조실

나는 통도사 아랫마을 신평이란 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통도사 불교소년회에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이 오셔서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설법도 재미나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부처님일대기도 들었지요. 대 서사시와도 같은 부처님일대기를 듣고난 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종족이나 나라에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듯이 일체형상이나 유위법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 반드시 멸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대목에서 나의 인생에 일대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그당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출세해서 입신양명하는 것을 가장 큰 충효로 알고 있었지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백년도 채 안되는 찰나인생에서 유위법을 닦는 것은 마치 유령탑을 좇는 것과 같아서 결국 허망한 굼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고는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통도사 자장암에 계시던 허몽초스님이 사람을 시켜 입산을 권유했습니다. 몽초스님은 당시 큰 인격자로 사중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몇날 며칠을 생각해봐도 생사를 초월하는 길이야말로 나의 이상과 합치되는 길인지라 동지달 21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17세되던 해였지요.

절에 들어가 처음에는 불목하니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생활하다 절에서 불목하니 노릇하려니 제대로 안됐습니다. 김치담그랴 장담그랴 생소한 일도 많았고 서툴다보니 호통을 당하기 일쑤였지요.

하루는 큰법당에서 재를 지냈는데 국을 모자라게 끓였다고 해서 대중들 앞에서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또 한번은 공양을 빨리 내오지 않는다고 마당에 '개구리 패치듯' 했습니다. 은사스님은 힘도 얼마나 장산지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하여튼 밥 푸고 국 뜨면서 눈물 훔친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스님노릇 안하면 안되나, 다 때려치우고 내려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장부가 한 번 뜻을 세웠으면 초지일관 끝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천만번 수모를 당하더라도 참고 이겨내기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부처 만부처, 천조사 만조사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 도를 이뤘다는 생각으로 모든 수모를 견뎌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한 번 꾸지람을 들을 때 한 번 아상이 벗겨지고 한 번 패대기쳐질 때 한번 업장이 소멸되는,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조기교육이 중요하듯 출가도 초기의 엄격하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는 것이야 말로 일생 수행의 밑받침이 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행자시절에 '하심(下心)'을 닦게 하려고 일부러 은사스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다그치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상과 교만과 우월감 분별심을 소멸하고 하심을 키워야만 뒷날 수행을 잘 할수 있는 것이지요.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고 나서 〈사집〉을 배웠는데 치문의 사친장(思親章)을 보면 동산 양개선사가 어머니와 서신왕래한 대목이 나옵니다. 선사는 자신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있던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출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정을 못이겨 만나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청을 번번히 거절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선사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하룻밤 묵게해 달라는 선사의 청에 어머니는 "내 아들도 스님이지만 스님들은 모두 매정하다"는 불평을 늘어놓으며 허락을 합니다. 시력이 약해진 어머니는 아들을 못알아 본겁니다. 다음날 세수를 하던 선사는 어머니에게 "보살님, 아들이 스님이라 하니 나한테도 어머니합시다. 어머니, 내 발좀 씻어주소"라고 요청합니다. 어머니는 "아니, 이스님 보소. 다 큰사람이 자기가 씻으면 되지, 누구보고 씻어달라 하노?"하며 다가가더니 우두둑 우두둑 소리나게 발을 몇번 분질렀습니다. 선사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손이 이렇게 시원하고 좋구나"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만부처 만조사도 고행 견뎠습니다
뜻 세웠으면 끝까지 지켜가야지요"

하직인사를 하고 절에 돌아온 동산선사는 발을 씻어달라던 스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밝히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답장에 "일찍이 인연이 있어 모자간이 되었는데 형은 세상을 떠나고 아우도 없어지니 말년에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하는 애절한 내용을 담아 아들에게 보냅니다. 다시 선사는 "금생에 불법을 배워서 내생에는 부처님회상에서 다시 만납시다"는 회신을 합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정히 그렇다면 반드시 목련존자같은 대도인이 되어 무명생사 윤회에 빠진 나를 제도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세족지회'의 고사에서 한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애착과 정이란 게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도의 근본이 다생에 걸쳐 쌓인 탐(貪)·애(愛)·증(憎)에 있으니 이때문에 성불을 못하고 윤회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다 문득 본질로 바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초반 수행에 미진함을 느껴 금강산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옛부터 금강산은 큰도인들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거니와 특히 금강산 마하연은 내로라하는 수좌들이 한번씩은 거쳐갈 정도의 유서깊은 고등선원이었습니다. 출가를 위해 고향집을 등졌듯이 구경각을 위해 나는 다시한번 길을 떠났습니다. 혈혈단신 걸망 하나만 달랑 들고 기약없는 길을 나선 것은, 오고 감이 없는 곳에 도달하기 위함이요, 마음의 고향을 찾기 위함입니다. 양파의 껍질을 한 꺼풀씩 벗기면 아무것도 남지않듯 내 관념의 허상을 하나하나 벗겨서 텅 빈 허허공공(虛虛空空)에 이르고자 했지요.

먼저 서울 선학원으로 갔습니다. 강석주 스님이 원주로 계셨는데 나더러 같이 있자고 하더군요. 얼마있자니 경허스님의 제자로서 선풍을 드날리던 송만공스님이 오셔서 친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다 "참선은 해서 뭐할래?" 물으시길래,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하려고 합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싱긋이 웃으시며 "그래 한 번 잘해보게"하셨지요. 수행이 일천한지라 더 이상 물을 말은 없었습니다.

선학원에 얼마있다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소요산 자재암에 들렀습니다. 염불방에는 나이드신 노스님 서너분이 계셨는데 염불을 아주 신심나게 했습니다. 염불소리에다 '쿵쿵' 북광쇠소리 그리고 폭포소리가 어울려 마치 '율려음'을 듣는 듯 했습니다. 신심이 차올라 걸망을 털어서 노스님들 대중공양을 해올렸습니다. 빈털털이가 됐는데도 전혀 걱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사찰, 법당의 음향시설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 뛰어난 소리가 보장되는 ……
- 가장 경제적인 법당 음향시설 .

『음향연구가 김문화』가 직접 설계 제작한 DX-707 마이크는 현재 법당앰프의 소리를 완전히 바꾸어 드립니다.

취급품목
- 법당전용 시스템 앰프
- 행사용 高出力 스피커
  용도 : 각종행사, 대법당 웅장한 음질을 자랑

법당의 필수품

특허품



법당 큰스님 전용으로 특별제작한 세계최고 성능의 마이크 입니다.

· DX - 707
스페셜 마이크
●공급가 : 200,000원



사용해 본 모든 스님들께서 너무나 만족해 하시는 마이크 입니다.

· DX - 707
분리형 스텐드 마이크
●공급가 : 200,000원



· TM -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공급가 : 85,000원



●방생법회, 휴대앰프
전기/밧데리 겸용



●고성능 무선 핀-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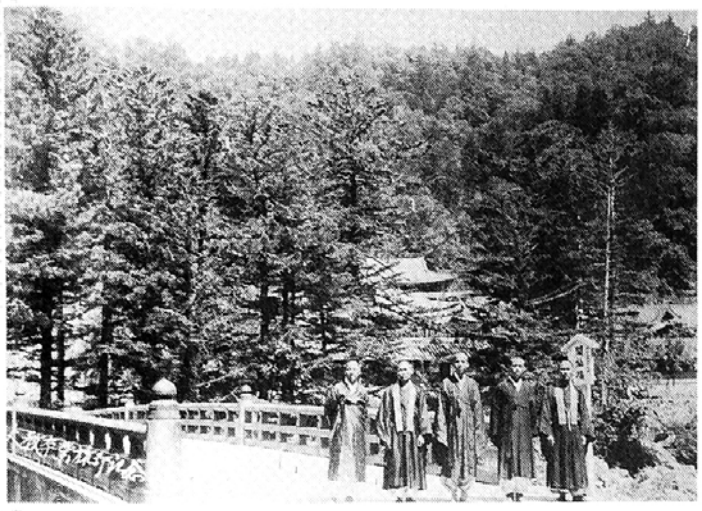
유 코 전 자

본사 : 15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전화 : (02)697-9976,605-3235
FAX : 695-9676

큰스님 수행한담

채워지는 도리 아시나요"

"양파껍질 하나씩 벗기면 아무것도 없듯 관념의 허상 벗겨 虛虛空空에 이릅시다"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시절 금강산 장안사로 수학여행가서 도반들과 함께 했다(왼쪽에서 두번째가 화산스님).

貪·愛·憎 때문에 성불못하고 윤회거듭
생사관문 결국 자신이 넘어야 할 태산

철원 도피안사 등을 거쳐 묵적지를 향했습니다. 때로는 70~80리를 걸어도 절을 찾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에는 사탑과 소가 울타리안에 함께 거주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런데서도 잠을 얻어 자곤 했습니다. 한번은 자고 일어나니 신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 오도가도 못하게 됐는데 급한 김에 천조각 등으로 임시조치를 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다보니 돌위에 등짐장수가 벗어놓고간 구멍난 헌 신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나더러 신으라는 듯이 버젓이 놓여 있었지요. 어찌나 반갑던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진실되고 절실하게 참구하는 구도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단계에 맞는 스승인연도 나타나며 음식 의복 등 필요한 물자가 어떤 형태로든 주어집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비우면 비울수록 넉넉하게 갖추어지는 도리가 있는데…. 사람, 동물 등 유정물과의 만남이 인연따라 이루어지듯 무정물과의 만남도 다 필요한만큼 시절인연따라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내금강 장안사에 도착하니 잣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청아한 개울물이 굽이쳐 흐르는데 환희심이 절로 났어요. 하루를 묵고 마하연에 가니 성철스님 탄허스님, 나의 사형이신 성학스님(봉공스님)이 머물고 계셨습니다.

조주스님의 무(無)자 화두를 들고 생사결단에 들어갔습니다. 경전은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했는데 왜 조주스님은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狗者無佛性)고 했을까? 왜 무(無)란 말인가? 의문을 타파하기 위해 참구를 거듭했습니다. 막내뻘이었던 저는 구참수좌들 못지않은 기백으로 정진에 임했지요. 그러나 마음은 잡히지 아니하고 잡념망상만 기승을 부렸습니다. 나중에는 갑갑증마저 생기더군요. 그때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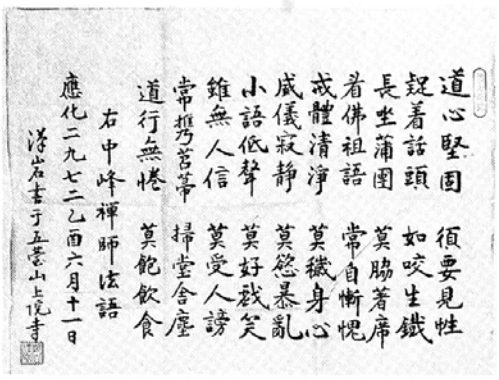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한노인이 썩은 물이 철철 흐르는 송장을 끌고 태산준령을 넘어가다 나더러 "이놈, 젊은 네놈이 이것을 져라"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엉겁결에 받아 들었는데 어찌나 겁이 나던지 잠이 깼어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생사관문을 넘어가려면 장애도 많지만 결국 자신이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강산 4사(四寺)하면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 신계사를 듭니다. 장소를 옮겨 한철 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점사 반야암 선방에 갔습니다. 당시는 왜정시대라 식량통제가 심했습니다. 10명의 수좌가 모인 반야암에 5사람이 한철 날 수 있는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대강사인 김설하스님(김용사)도 늦게 발심해서 참선하러 와 계셨는데 "하루 두끼씩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 좋은 금강산에 온 김에 다함께 법연이나 짓고가자"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도 고마워서 10명 모두 정진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의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지식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대산에 계시는 방한암 큰스님을 찾아뵙기로 했지요.

눈내린 금강산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고갯마루를 지나다 눈구덩이에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렀습니다. 걸망은 걸망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한참 굴러가다 멈추었는데 은몸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바짝 정신이 드는데 입에서 배워보지도 않은 생소한 말과 게송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답답하기만 하던 의증도 사라지고 마음은 한없이 상쾌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읊은 게송이

천지에 눈쌓이니 의심길이 끊어졌네
청천의 기러기소리 떨어지는 그곳에
목마는 길게 울고 돌사람은 춤을 추네
무심코 한바탕웃음 밝은 달은 휘영청



◇해방되던 해 방한암스님이 화산스님에게 좌우명으로 써준 '중국 중봉선사 법어'.

게송을 읊고나자 모든게 여유로워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충만했지요. 죽고 사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곧장 한암스님을 찾아갔어요. 혹시 그릇된 경계나 외도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게송을 들으신 한암스님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풀밭을 헤매는 까닭은 견성하기 위한 것인데 자네 성품은 과연 어느 곳에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앉고 서고 눕고 하는 행주좌와에 다 있건만 한 물건 갖고 이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고 답했지요. 스님께서 또 물으시기를 "내자성을 밝혀 알 것 같으면 바야흐로 생사를 벗는 것인데 숨떨어져 죽는 그순간에 어떻게 벗겠는가?"하셨습니다. 이에 "본래 입은 것도 없는데 뭘 또 벗을게 있겠습니까?"고 화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뒤에 "큰스님, 제가 가야할 길을 일러 주십시오"하자 스님께서는 "자네 갈길 스스로 가시게"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대산 상원사서 한암스님을 한 3년간 모셨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니 몽초스님이 병환으로 몸져 누우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통도사로 내려가니 노장님이 "견성조사 선지식도 무식한 것보다 유식한 것이 낫다"며 경학공부를 권해요. 큰절에 가서 3년동안 능엄경을 비롯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대교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럴즈음 태평양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포교를 위해서는 유교를 비롯한 다른 학문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본 선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스님대상 교육기관이었는데 체제가 우수했습니다. 1년과정을 마치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오대산에 들어갔습니다.

오대산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나올때 한암 큰스님께서 평소에 늘 가슴에 담고 경책하라고 좌우명을 써 주셨습니다. 중국 중봉선사의 법어입니다.

몇가지 살펴보면

도심(道心)이 견고하면 모름지기 성품을 본다

화두를 의심하되 생쇠를 씹는 것처럼 하라

비록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비방받는 사람은 되지말라

도행을 게을리 말고 음식을 배불리 먹지말라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05

박 순 달

4大와 原子 ⑦

물질과 에너지

시간·속도등 개념 도입 물체운동 설명
상대성·대통일장 이론 등 꾸준히 발전

전기는 기원전 600년경 탈레스가 호박을 마찰하면 종이나 털이 붙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길버트는 1600년 〈자기(磁氣)와 자기성 물체〉라는 저서에서 호박, 금강석, 청옥, 수정, 운모 등이 전기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18세기 파라데이는 전깃줄에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달라짐을 발견하고 전기와 자기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드디어 1865년 캠브리지대학 교수였던 맥스웰은 전기와 전자기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수학식인 전자기파동방정식을 만들어 전자기학을 정립하였다. 즉, 이제는 전기와 전자기를 한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뉴톤은 빛이 입자(단단한 물체)라고 했다. 그런데 토마스 양은 쌍슬릿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을 하여 빛은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관자에 서로 가까이 길고 가느다란 두 개의 구멍을 만들어 빛을 쪼이면 반대편에 두 개의 희미한 빛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결에서와 같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교차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물결과 같은 파동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1900년 막스프랑크는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수학적으로 빛의 파동은 입자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광자라 불렀다. 광자는 쪼개질 수 없는 묶음으로 보고 그래서 양자(量子)란 이름이 나오고 양자론이 탄생한다. 중심내용은 빛과 같은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양(量, quanta)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다.브로글리는 1924년 모든 입자는 파동성을 지녔다고 설명한다.

물체의 운동은 힘에 의해 일어난다. 즉, 물체에 힘을 가하면 움직이기도 하고 더 높은 위치에 가기도 한다. 1687년 뉴톤은 만유인력(萬有引力)을 발견한다. 즉 모든 물체는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중력(重力)이라고도 한다. 우주의 별들의 운동은 이 중력으로 설명한다. 1900년 막스프랑크가 전자기론을 정립하면서 전자기력(전기의 힘)을 도입한다. 1911년 레더포드가 원자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에서는 각 입자들이 천체에서 적용되는 운동법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천체운동에는 거리가 2배 떨어지면 서로의 인력은 그의 제곱인 4배가 약해진다는 역제곱법칙이 있는데 원자핵에는 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자기력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원자핵에는 핵력이라는 힘이 있고 이 힘은 두가지로 나누어 强力, 弱力이라 하였다. 그래서 1960년까지 자연에는 4가지 힘 즉, 중력, 전자기력, 강력, 약력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와인버그와 살람은 4가지 힘의 통합이론을 발전시켜 노벨상을 수상한다. 이것을 대통일장이론이라 한다.

이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는 오래동안 연구되어 왔는데, 17세기가 되면 길이, 시간, 힘, 질량, 속도, 가속도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립하려고 했다. 그와 함께 힘을 양적으로 표현하기위하여 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했다. 에너지도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열에너지등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빛을 받으면 뜨거워지는데 이것은 열에너지를 많이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물질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러더포드는 방사선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중 하나인 알파선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선이 속도를 잃으면 헬륨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에너지인 방사선이 어떻게 물질(헬륨)이 되는가? 구별이 애매하게 된 이 두 물리양에 대해 명쾌한 설명이 나타났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이론을 발표하여 유명한 공식 E = mc2으로 물질과 에너지가 같다고 설명한다.

원시불교시대의 4대와 그리스시대의 4원소설은 같다. 4대론은 기원전 6-8세기경에 인도에서 완성되고 4원소설은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에서 완성된다. 4원소설은 16세기까지 진전이 없다가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급속하게 발전한다. 현대 물질론은 소립자설, 입자와 파동, 물질 에너지 등가론, 그리고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원리로 설명되고 있다.

〈서울대교수 · 산업공학과〉

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요강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 범패, 요잡 및 작법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발전 시키고져하오니 뜻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合掌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수계 득도한 자
2)오계를 수계한 자
3)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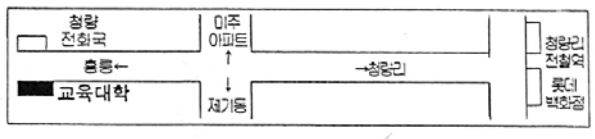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 1)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수계증명서 사본
3)추천서
4)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5회(월~금)

접수일자 : 1997년 2월17일~3월15일

▼ 약 도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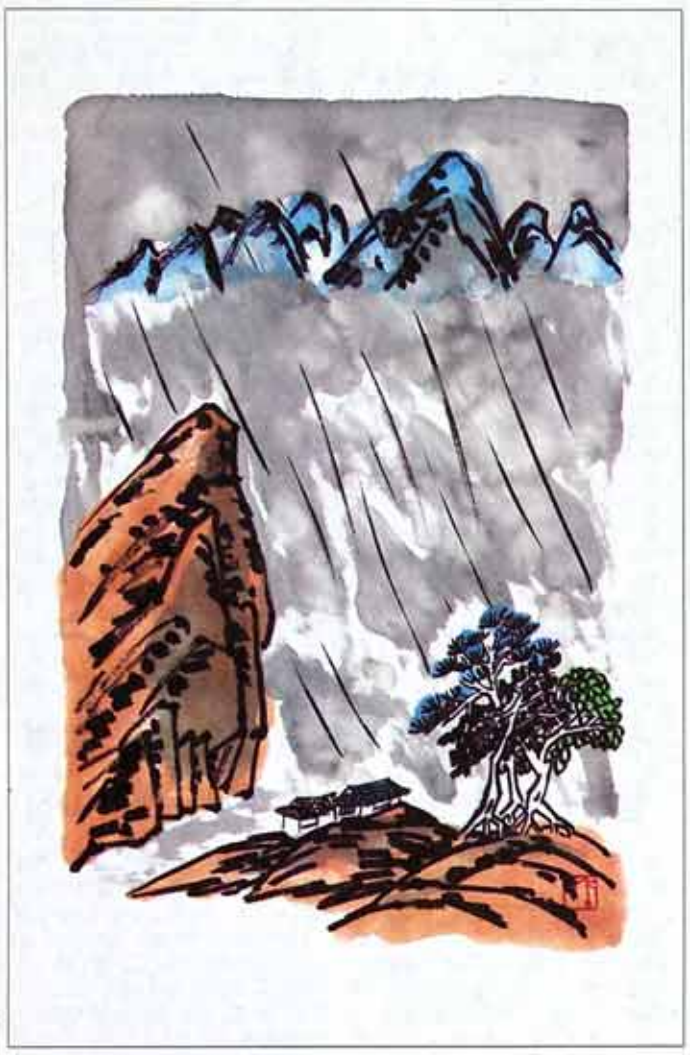
불 교 전 통 의 식 교 육 대 학

고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115

줄장마 한달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텅빈 듯한 무욕도의 하루하루는
운문스님의 '倒一說' 그대로였다

홍경래난 이후 8도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그칠줄 모르는 장마비에 우녀가 몸져눕고…

대해까지가 그런 참극의 대상이었던가. 그런데 그는 피투성이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제 모습으로 돌아온해 살아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효영 명오가 죽은 것은 파도더미에 휩쓸려 바위바닥에 내동댕이쳐졌기 때문이었다.

대해와 두 사람은 밤 취침시간 직전에 좌선을 함께 마치고 방안에서 경행(經行)하다가 바람이 거세어진 바깥 어둠 속으로 나가 가슴 깊이 그 어둠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방안에 갇혀있었던 상태의 심신을 활짝 풀어놓았다.

그들의 몸은 오후불식이었으므로 비어 있었다. 그런 빈 몸인지라 바다 한복판에서 힘껏 달려온 밤의 거센 파도소리의 찬 기운이 들어가서 상쾌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마음을 놓았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파도의 끝자락 가까이 다가갔다. 언제나 파도는 거기까지 달려와서는 오래동안의 질주를 한갓 패배로 끝장내어 그 파도의 마지막 자락으로 물러가는 것이었다.

바로 거기까지 다가간 세 사람이 한 마디씩 주고 받았다.

"오늘밤은 북진보살(北辰菩薩—북극성)이 보이지 않는군."

"다른 보살들도 일찌감치 숨어버렸어… 하늘 아래의 일이 늘 온전하지 않으니 어찌 하늘의 일인들 편안하겠나."

"누군가는 자정이 되면 으레 북두칠성에 예배하여 심증(心證)을 실천하였다 하지… 복덕과 수명을 늘려 발원(發願)한 바를 원만하게 이루고저…."

"늘이다니 목숨이 무슨 놈의 여름 엿가락이란 말이던가."

"자 줄탁(啐啄)질이야 그만 하고 들어가세"라고 효영이 막았다. 줄탁이란, 병아리가 부화될 즈음 알 속에서 쭉쭉 빠는 소리를 내는 줄(啐)과 어미닭이 병아리를 깨려고 껍질을 쪼아주는 탁(啄)을 말한다.

옛 선방의 책 〈벽암록(碧巖錄)〉 16측(則) 공안에는 "… 학인은 줄하고 스승은 탁하도다"라 하였다. 이것은 화두의 하나이다.

그러나 효영은 대해가 어미닭이고 명오가 병아리이거나 거꾸로 명오가 어미닭이고 바다의 장부 대해가 병아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입놀림을 그만두고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자는 뜻이었다.

그때였다. 어둠의 저편에서 실로 엄청난 높이의 커다란 파도더미가 떨어져 그들 세 사람을 몽땅 휩쓸어 바위바닥에 내리쳐댄 것이었다.

세 사람은 그 파도자락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다가 바위의 모서리에 심하게 부딪쳐 거기에 남겨졌다. 그 가운데서 대해만이 바위에 다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제정신 없이 기어오를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예성감 젊은이 효영과 명오는 바로 송장이 되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도 생사에 대한 생각이 어린 시절부터 깊었던 효영이 아니던가. 나이가 들수록 생사나 우주에 관한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폭넓은 무역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그런 효영의 영향을 받아 그와의 우정 가운데서 이 세상의 철리(哲理)를 깨치려고 갖은 고행과 난행도 마다하지 않았던 명오가 효영일행 가운데서 가장 열렬한 수행자로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무욕도의 밤에 그 어둠 속의 파도더미를 만나 생사에 대한 공부를 이승에서는 마감한 바였다.

다음날 대해의 의식이 회복되어서야 간밤의 참사가 밝혀졌다. 인담은 마치 그의 몸 속에 어떤 감정도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겨울 늙은 농부가 익숙한 솜씨로 새끼를 꼬아가는듯이 효영 명오를 장사지내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두 시신을 비록 여기저기 기운 것일망정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준 것으로 가라입히기 전에 바닷물이 말라붙은 시신은 맑은 샘물로 정성껏 씻어냈다.

문득 담당하던 인담의 두 눈에서 각각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시신 중의 하나인 그 조용하기 짝이 없는 알몸 위에 떨어졌다.

그는 이번 일을 누구와도 의논하는 일 없이 이 섬 안에서 그 자신만이 사는 것처럼 처리하였다. 그러서 효영 명오의 다비(茶毘)는 그들이 죽은 다음날 저녁때 간밤의 거센 파도가 가라앉은 동안에 그가 혼자 배에 시신을 실어다 저만치 바다 가운데다 내버리고 돌아 오는 것으로 끝마쳤다.

우녀조차도 그런 인담에게 입을 열 겨를이 없어 인담의 뜻에 순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녀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지만 '이 섬 안의 두 송장' 운운한 말이 얼마나 방정맞게 튀어나온 말이었던가를 그 말이 적중한 뒤의 시간이 지나서야 아픈 데가 덧나서 새로 아픈 것처럼 떠올랐다.

한갓 점장이가 되려고 이제껏 공부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자책까지 일어나는 것이었다. 아니 그녀는 점장이기에 앞서 지야차(地夜叉) 노릇을 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차라리 천야차 허공야차는 날개가 달려 하늘과 허공을 날아다니며 악귀노릇이나 하지, 땅의 야차는 엉금엉금 돌아다니며 남의 존귀한 생명을 갉아먹는 악행의 전신이 아닌가.

그런 우녀의 말없는 자책은 인담이 아니면 짐작할 수도 없는 속 깊은 것이기도 하였다.

대해는 회복되었으나 두 눈은 빛을 잃었고 입은 물 속에 오래 담가둔 반찬처럼 싱겁게 다물고 있었다.

그런 대해와 상을 소석만이 마음 깊은 슬픔을 담고 그들의 고개가 숙여진 채였다.

무욕도가 두 사람의 부재만으로도 그곳에 남아있는 인담 우녀 대해 상을 소석마저 부재인 것 같은 텅 빈 느낌으로 오로지 가득차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倒一說).

이 한 마디는 무슨 시공(時空)을 시원스럽게 뛰어넘는 대답이 아니라 이 섬의 나 나중에 나타난 군인들조차 겁이 나서 다 도망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도 무욕도에서는 통 모르고 있었다.

아니 조선 8도의 여기저기서 홍경래가 일으킨 그 무서운 난리 뒤에 그 난리에 뒤질세라 도적과 부뢰배들의 일이 끊일 날이 없고 그런 판에 영남의 흉수에 이어 이번에는 충청도 바닷가 일대에 큰 비가 내리는 중이었다.

저 남쪽바다 어디에 있다는 유구(琉球) 나라의 뱃사람이 표류되었다가 가까스로 구출되어 그 사람을 청나라로 보내는 일도 바로 이런 서해의 큰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

무욕도는 비의 섬이었다. 사람들도 비 자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의 방도 습기가 그들먹하였다. 그들의 몸도 습기로 이루어져 4생(四生) 가운데 태생(胎生) 난생(卵生) 화생(化生)이 아닌 습생(濕生)이기만 하였다.

그 처연한 적막 그것을 뜻하는 것 같았다.

"만약 설법을 듣는 사람도 없고 설법할 때와 장소도 없었다면 부처님은 어떠셨을까요?"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한 운문(雲門)의 즉답이 그것이거니와 그런 즉답이 아닌 하나의 현실이 되어 무욕도의 남은 사람들이 보내는 하루하루였다.

아무도 말하는 일과 상관없이 또 하루 하루가 바로 그들이 도달한 경지이기라도 하단 말인가.

효영 명오를 바다의 고기들에게 넘긴 뒤 그들은 인담의 뜻에 따라 7일째의 염불 따위도 걸러서 49일이 되는 날인데 그날부터 줄곧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 비는 하루 이틀로 그칠 비가 아니었다. 때 아닌 장마였다.

처음 며칠이야 오랫만에 내리는 비였으므로 섬의 침울한 기운을 푹 적셔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비가 1주일을 넘기게 되어도 그칠 생각 없이 하늘의 뭇 군데가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줄줄 새는 듯이 내리는 판이 계속되자 섬의 사람들도 너나없이 견디기 힘든 것으로 되어갔다.

사후선이 떠난 뒤 충청도 바닷가의 한 군데인 마량진(馬梁鎭) 언저리에 영국 군함이 세폭짜리 커다란 돛을 올려 나타나자 그 바닷가 일대의 백성이나 벼슬아치들이 모두 우녀가 습기 때문이었는지 몸져누워야 하였다. 이렇다는 병명도 몰랐다.

웬만한 병이야 인담의 진맥이나 소박한 의술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이번의 우녀는 첫째 진맥에도 나타나는 것이 없었다. 첫째 그녀는 하루에 먹는 두 끼니의 공양도 거르는 일이 잦았다.

두 끼니라고 해야 아침의 죽과 점심의 잡곡밥일 따름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숭늉을 마시는 일로 그런 두 끼니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이런 우울한 도량이라 해서 하늘이나 땅이 생각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장마는 걷힐줄 몰랐다. 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맡은 바를 충실히 하는 것처럼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이런 판이라 패배를 띄워 육지로 건너가야할 일도 삼가고 있었다. 아직 양식이나 그밖의 것들이 동이 난 것은 아니어서 한달쯤은 지낼 수 있었지만 거의 한달에 한두번씩 건너다님으로써 섬의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바깥소식 따위가 건너오는 일이 이곳의 숨통이기도 해왔는데 그런 숨통이 끊어진 상태로 지루한 하루하루가 비에 젖어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판인데도 북쪽 한강 하류에서는 수적(水賊)이 출몰하면서 장마철의 세곡(稅穀)창고가 털리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드디어 우녀가 습기 때문이었는지 몸져누워야 하였다. 이렇다는 병명도 몰랐다.

웬만한 병이야 인담의 진맥이나 소박한 의술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이번의 우녀는 첫째 진맥에도 나타나는 것이 없었다. 첫째 그녀는 하루에 먹는 두 끼니의 공양도 거르는 일이 잦았다.

두 끼니라고 해야 아침의 죽과 점심의 잡곡밥일 따름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숭늉을 마시는 일로 그런 두 끼니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이런 우울한 도량이라 해서 하늘이나 땅이 생각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장마는 걷힐줄 몰랐다. 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맡은 바를 충실히 하는 것처럼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이런 판이라 패배를 띄워 육지로 건너가야할 일도 삼가고 있었다. 아직 양식이나 그밖의 것들이 동이 난 것은 아니어서 한달쯤은 지낼 수 있었지만 거의 한달에 한두번씩 건너다님으로써 섬의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바깥소식 따위가 건너오는 일이 이곳의 숨통이기도 해왔는데 그런 숨통이 끊어진 상태로 지루한 하루하루가 비에 젖어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판인데도 북쪽 한강 하류에서는 수적(水賊)이 출몰하면서 장마철의 세곡(稅穀)창고가 털리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면 궁궐의 뭇군데가 비가 그친 틈을 타 붙타는 일도 생겨났다.

하지만 그런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 섬에서는 차라리 불이라도 나는 일이 있기를 바랄만큼 불기운이 전혀 없었다.

장작이나 그밖의 풀나무 땔감들이 몽땅 젖어있으므로 구들에 불을 짚여본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부싯돌마저 아무리 힘껏 쳐보아야 불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저 마른 번개의 한가락인양 번쩍대다가 말 따름이었다. 먹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생식이었다.

한 불우한 정치가가 유뱃길을 떠나는데 하필 이런 장마철의 길이어서 한층 더 참담한 바 있을 터이고 그런 일과는 다르지만 또 하나의 유배지이기도 한 이 섬의 하루 역시 참담할 뿐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림 · 조항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소식 ● 지제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 단 독직 에리분명 정리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격조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품목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퇴행성 관절염 전문
좌골 신경통 (3회금)
張三洙 합장
543/7306 711/4370

경력 관계없음 사원모집
삼보에 귀의 하오며 함께 일하며 정진공부를 하실 도반을 모십니다.
■ 연령 : 40세이상 (정년퇴직자 및 명퇴자 환영)
■ 대상 : 남 · 여
연락처 : 739-8074-5 나찬귀합장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불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생동하는불교
해동불교산악회 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산행하며 포교하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해동불교산악회 합장
사무국 (02)374-2254
375-2254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포교원 안내
▶ 위 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 평 수 : 36평
■ 보증금 :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간경화 · 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사찰안내
▶ 위 치 : 장호원(발전요충지)
▶ 대 지 : 437평 ▶ 법당 : 27평
▶ 사무실 : 15평 ▶ 요사채 : 42평(방15개)
▶ 매매가 : 3억4천(급매)
▶ 전 망 : 평당 150만 이상의 요충지
※ 부동산 사절(직접상담)
☎ 0336)643-9051 · 0331)224-4995

포교당 안내
▶ 위 치 : 부천시 중동 신도시 입구
▶ 전 세 : 3천3백만원
▶ 평 수 : 25평
연락처 : 032)656-7523

귀의 삼보하옵고
하이얀 도화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재작한 불교그림동화(한국) 「깨달음의 세계」 (6배판 컬)및 단행본 「부처님일대기」가 재판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 (소설, 시, 수필)및 사업에 필요한 일반 홍보물등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기획 ·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원 TEL.(02)932-6327, 937-5759

포교당 안내
▶ 50평 ·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기타절충
연락처 : 02)248-0479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i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학수물나옴 사찰창건 30년이상됨을
▷가격: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우학스님 수필 · 시 · 소설
■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직원 모집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 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자 간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 자 격
●40세미만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불교활동 경력이 있는자 또는 불교신자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반명함판 사진부착)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직접방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시 : 중구 신당3동 368-100
전 화 : 237-4438/9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 대불련 각 지부·지회수행결사선우대표들은 지난 14일~16일까지 원당 문사수법당에서 모임을 갖고 1백일 수행 지침을 마련했다.

"대불련 100일 수행결사"

사찰-가정-학교 연계 신행 프로마련
매일 108배·수행일기쓰기등 실시
일년내내 지부별 소모임 활성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수원대 법학과)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원당 문사수법당에서 '제1차 수행결사선우들의 모임' 갖고 100일동안 전국의 사찰·가정에서 수행하기로 결사 했다.

이번 수행결사모임은 지난 1월 개최된 제6차 수행학교에서 발의, 조직됐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일관했던 신행활동을 수행을 통해 혁신을 이룩하자는 것. 대불련은 이번 수행결사선우들의 모임을 통해 사찰과 가정 학교에서 청년불자들이 실시할 수 있는 수행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번 수행결사모임에 참여했던 10여명의 결사선우회원들은 이를 토대로 각 지역 지부·지회에서 수행과 지도를 하게 된다. 또 이번 모임에서는 〈수행법요집〉과 수행일기책자도 배포돼 눈길을 끌었다.

수행결사선우들은 우선 가정에서 매일 108배, 관세음보살 정근, 경전(금강경 유마경 법구경 등)및 보왕삼매론을 독송하고 하루동안 수행을 점검하는 수행일기도 작성한다.

또 주 1회 수행경험담을 나누는 마음나누기를, 월 1회 사찰수련회를 실시해 신심을 다진다. 이 수련회에서는 그동안 개인수행을 토대로 참선, 자자와 포살, 나눔의 시간, 자유수행 등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이처럼 대불련 수행결사는 각 지역 지부·지회별로 개인및 단체 수행형식으로 1백일 동안 치뤄진다. 1백일의 수행이 회향되면 각 지부·지회의 결사 대표들은 다시 중앙모임을 갖고 지역별 수행에 대한 의견을 발표, 특성에 맞는 수행지침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각 지부·지회는 다시 1백일 동안 수행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수행은 연중내내 실시되며 각 지역별 수행소모임 활성화와 대불련의 위상을 올곧게 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고영삼 회장은 "수행결사를 조직한 것은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불법을 믿고 따르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하는 대학생불자들의 기본적인 도리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불련은 수행지도법사를 선정해 수행결사선우들은 물론 수련대회 등을 비롯 각종 수행생활에 의문점을 지닌 청년불자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수행·상담전화도 개설했다(02-723-5850).

한편 대불련은 각 지부·지회에서 수행소모임, 수련대회, 상담을 요청할 경우 순회수행지도도 적극적으로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백남석법사는 "그동안 대불련의 수행은 1회성에 그친 것이 많아 생활속의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미래불교를 이끌어가는 청년불자들이 매일매일 수행정진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결사다"고 강조했다.

치마불교, 노인불교로만 치부됐던 한국불교. 하지만 수행을 통해 신행혁신을 추구하는 청년불자들의 결사정신은 미래불교를 밝게 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당=김종근 기자

대불련출신 스님들 '동아리 결성'

매년 안거후 모임…탁마·포교 '한몫'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 스님들이 대학생 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모임은 지난 96년 8월 하안거를 마친 대불련 출신 스님 10여명이 상견례를 하면서 시작됐다. 스님들은 매년 안거후 일주일을 전후해 모임을 갖고 각기 수행에 관한 탁마를 하기로 했다. 범우스님(송광사 강원)등 5명의 스님들은 이 모임을 개인수행뿐만 아니라 대불련포교활성화를 위해 정례화하기로 하고 금년초부터 발기인 회의를 갖는 등 조직화 사업을 해왔다.

이에따라 대불련 출신 스님들은 오는 28일 대전 대진정사에서 모임을 갖고 회장선출, 사업계획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모임에는 서울지부장을 역임한 법현스님(음성 고심사)을 비롯 주경(수덕사), 지산(해인사), 묘경(중앙승가대), 이지(동국대), 은광(운문사) 정묵(송광사), 수암·정암스님(대진정사)등 대불련출신 스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발기인 모임에서는 오는 27일까지 대불련 출신스님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042-256-5917)



◇법현스님



◇지산스님



◇주경스님

용화사 청년회 16일 창립

"소외된 이웃에 자비를"

'1가구 1인 결연'·매일 음료 전달 등 전개

대한불교청년회 경북지구 영천 용화사청년회(회장 지봉스님·용화사 주지)가 지난 16일 창립됐다. 〈사진〉



용화사청년회는 창립부터 1가구 1인 결연맺기와 요구르트 보내주기 운동 등 보살행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이란 주제로 마련된 음료 보내주기 운동은 지역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30세대에 매일 음료를 보내주고 있다. 청년회는 음료 보내주기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후원회조직과 용화사 신도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비의 저금통을 통한 모금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지봉스님은 "용화사 인근 야사동지역에는 약 1백40세대 정도의 불우한 이웃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세대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향후 가정방문 등을 통해 현황을 조사해 극빈자에게는 월 3만원정도의 생활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청년불자

대불청 사업부 신설키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지난 15일 만해교육원에서 이사회의를 갖고 만해백일장개최, 사업부 신설 등의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8회 전국만해백일장 개최(3월 1일 동국대) △회비책정(1억2천6백여만원) △사업부 신설 및 매장설치 등의 안건을 통과했다.

만해대학 신입생 모집

만해대학(학장 석주스님)은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규반·통신반으로 나눠 모집하는 만해대학의 원서마감은 오는 3월 6일까지며 지원자격은 청년불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강좌는 경전학습(천수경), 이론학습(불교사상입문·전통문화와 불교·만해의 정신과 사상·불교사), 선학강좌(위빠사나), 실습(참선실수·불교문화탐방) 등이다. (02)738-3385

천태종 청년회 신년법회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지난 23일 총본산 구인사 대법당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의 50여 사찰청년회원 8백여명이 참석했다.

성룡사 청년회 독경대회

서울 신촌 성룡사청년회(회장 신원식)는 오는 3월 1일 성룡사에서 제22주년 창립기념법회 및 제5회 독경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독경대회에는 청년불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경전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참가신청마감은 당일까지.

(02)324-0777



보은의 선물 · 감동의 선물
최고의 건강 선물
역시 산삼입니다

長腦 山蔘

존경하옵는 불자님께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불을 축원드리오며 지난해 힘들고 지친 심신을 새상품 산삼으로 기력 회복시켜드리고자 보시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사오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장뇌산삼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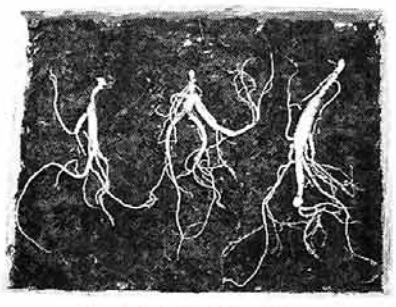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蔘**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蔘을 통해 山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로 경이적입니다.

'겨울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207-8387
0346)591-3989

홍천임업협동조합 공급하는
10~30年根 수량제한 한정판대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물량 홍천 임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여 가짜로 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게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체주문 및 선물용이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급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한국역학대학
97년 신입생모집

1. 목적 : 국내 최초 공신력 있는 역학 교육기관으로써 심오한 동양철학(역학)을 누구나 쉽고 바르게 교육시키며 올바른 역학인(카운셀러)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간 및 과목
교육기간 : 6개월
교육과목

오행역학	명리학	성명학	상담학

3.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입학금 및 수강료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5매	97년2월17일 ~ 3월 29일	남·녀 누구나 선착순 접수	입학금 30만원 수강료 월10만원 (교재 및 강의 테이프 포함)

4. 특전
● 본대학 졸업장 및 역리사 자격증 부여
● 자유직업을 원하시는 분 공인 역리사 활동 취업보장
● 졸업후 희망자에 한하여 일본 역도대학 유학알선
● 지속적 교류 및 역학정보 제공

한국역학대학
서울 송파구 송파1동 15-3 해광 B/D4층
대표전화
(02)423-6446

"碧眼에 비친 미륵세계는 …"

힐트만교수 '운주사 천불천탑' 펴내

천불천탑서 문명위기 탈출대안 찾아

"전생에 한국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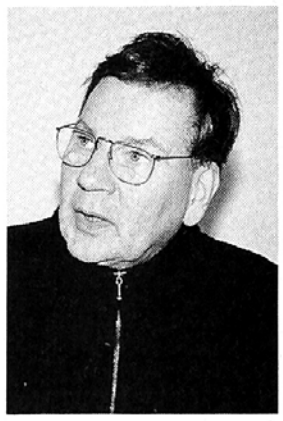


"땅에서 자라난 것 같은 농부의 심성을 닮은 미륵석불과 하늘로 오르려는 석탑의 형상미. 토막논들 사이 군데군데 불상과 탑들이 세워져 있고 바로 그 옆에서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 운주사 옆 만산계곡의 정경을 처음 대하고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 〈미륵-운주사 천불천탑의 용화세계〉(이경재·위상복·김경연 譯, 학고재 刊)의 저자 힐트만교수(52·독일 함부르크 미대)는 운주사 천불천탑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을 이렇게 회상했다.

〈미륵-운주사…〉에서 1백여장의 아름다운 흑백사진과 함께 자신의 예술론을 진지하게 펼치고 있는 힐트만교수는 "전생에 한국 스님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전생을 찾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천불천탑이 현대 산업사회의 위기에 대한 예술적 대안임을 발견한 그는 운주사 천불천탑을 신앙과 예술과 생활이 절묘하게 결합된 공간으로 파악한다. 즉 "노동과 소유와 유용성이 녹아있는, 생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엄숙한 장소"라는 설명이다. 또한 힐트만교수는 만산계곡의 불상과 탑에는 용화세계(龍華世界)를 꿈꾸는 민중들의 소박한 염원이 담겨있다고 해석한다.

독일화단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서양화가 송희숙씨와 결혼한 힐트만교수는 지난 85년 처음 내한했다. 천불천탑을 보고 첫눈에 한국의 불교문화에 반한 그는 이듬해 교환교수로 다시 한국을 찾았고 운주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 87년 〈미륵-한국의 성스러운 돌들〉이란 책을 독일에서 펴내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한 몫을 했다. 이번에 나온 〈미륵-운주사…〉는 이 책의 한국어 번역판.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천불천탑의 세계는 우리에게 이 땅의 문화유산을 밑거름으로 우리시대의 미학과 예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일깨운다.

김재경 기자

명사추천 불서 100선

한국의 불화

불교미술에 관심있는 신자가 아니고는 사찰에 모셔진 불상과 불화를 보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슨 불상이고 무슨 불화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불화는 불상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바로 문명대교수(동국대)의 〈한국의 불화〉(열화당 刊)이다. 중견학자인 문명대교수는 일찍이 석굴사원과 불교조각에 대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회화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를 병행하여 왔으며,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원에 재학하던 1980년으로 기억한다. 미술사를 공부하려고 진학했지만 많은 분야 가운데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무렵,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불화라고 하면 수업시간에 들었던 고려불화 정도였고 그것도 수박겉핥기식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나에게 이 책은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책을 읽어가는 동안 나는 점점 불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전혀 초면이었던 교수님을 찾아가 불화를 공부하겠다고 감히 부탁할 정도가 되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문교수님의 지도학생이 되었고 그때의 인연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김 정 희
(원광대 교수·고고미술사)

시대별 불화양식 심층 분석
'불화란 무엇인가' 해답 제시

이 책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불화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불화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불화의 기원, 용도, 주제, 불화의 제작방법, 우리나라 불화양식의 변천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불화의 주제에 대한 장(章)에서는 전각에 봉안된 불화가 어떠한 신앙적 배경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불화 안에 표현된 권속(眷屬)들은 누구이며 왜 그곳에 표현되었는가 하는 문제들을 경전과 신앙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 불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불화양식의 변천을 다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불화가 삼국시대에 불교의 전래와 함께 수용되어 고려시대에 이르러 황금기를 맞이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민중의 불사(佛事)로서 크게 발전하였음을 밝혔으며, 각 시대별로 독특한 불화 양식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화승(畵僧), 즉 불화를 그리던 승려화가들에 대해 주목하여 이후 불화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이 발간된 이후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불화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어 많은 연구자가 배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불교회화가 미술사의 중요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지금도 나는 이 책을 가까이 두고 학생들과 인연있는 사람들에게 일독(一讀)을 권하곤 한다.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불교회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며, 특히 불교신자들이 좀더 깊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출판소식

"佛光洞은 부처님 서광의 땅"

향토사학자 이성영 翁 '…은평이야기' 출간



13대째 서울에 살고 있는 토박이 향토사학자로서 할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의 구전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펴낸 이 옹은 6백50년 동안 불교를 믿어온 불교집안의 후손.

최근 서울 은평구 각 동네의 지명유래와 명소를 상세히 소개한 책 〈재미있는 은평이야기〉(도서출판 민 刊)를 펴낸 불자 향토사학자 이성영 옹(73)은 불광동이 고려초 현종때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가진 동네임을 자랑한다.

"불광동(佛光洞)이란 이름이 부처님의 서광이 항상 서려있다는데서 유래했다"는 이 옹은 "그래서인지 교회가 불광동에 들어선 것도 최근의 일"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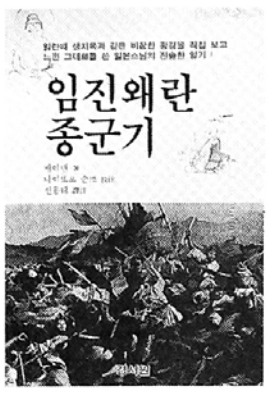
'화성의 얼' '화성의 효'
향토자료집 2권 발간

화성문화원(원장 천광인)은 최근 향토사료집 〈화성의 얼〉과 〈화성의 효〉를 동시에 발간했다.

〈화성의 얼〉은 각 면의 지명유래와, 유적 유물을 상세히 기록했으며 50여가지의 전설을 수록했다. 〈화성의 효〉는 효와 관련한 전설과 '경로효친 선양 글짓기 대회" 금상 작품들을 수록했으며 부록에 〈부모은중경圖〉를 실었다.

"왜군 지옥사자처럼 잔악했다"

신용태교수 '임진왜란 종군기' 번역



임진왜란 당시 생지옥과 같은 비참한 광경을 직접 보고 사실대로 쓴 일본스님의 일기가 국내에 처음 번역, 출간돼 관련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국대 신용태교수(일어일문)가 역주(譯註)한 〈임진왜란 종군기〉(경서원 刊)가 그것. 일본 안양사(安養寺) 주지였던 케이넨(慶念)스님이 정유재란(丁酉再亂)때인 1597년 6월 24일부터 이듬해 2월 2일 사이 큐우슈우(九州) 우스끼성(臼杵城) 성주인 오오타 히슈우(太田飛州)의 군의관으로 조선전장에 종군하면서 기록한 일기를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원제목이 〈일일기(日日記)〉인 이 책은 안양사에 소장되어 있던 원본을 편자인 오가야마大 나이또오 슌뽀(內藤雋輔)교수가 일본 조선학회가 발간하는 〈조선학보〉 35집(1961)에 해설과 함께 발표한 것을 신용태교수가 제목을 바꿔 36년만에 처음 번역했다.



정유재란 참전 日스님의 참회록
살인 약탈 방화등 적나라하게 기록

대체로 살인 약탈 방화 인신매매 등 싸움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참상을 본 그대로 일기체로 기록하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와까(和歌: 5·7·5·7·7조의 일본 정형시)로 읊어가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는등 불심을 바탕으로 한 수행자의 감회가 시가와 산문으로 엮어져 있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보다 케이넨스님의 지극한 불심이다. 육십 노구를 이끌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오직 종교적 양심으로 부처님께 용서를 빌면서 읍소(泣訴)하는 정황을 일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본군의 잔악함은 마지 지옥의 사자가 죄인을 잡아 다루듯 하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도 지극한 불심에서 우러나온 양심의 가책에 기인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사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제2차 조선침략의 숨겨진 일면, 즉 이 조선침략이 당시 대다수 일본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재〉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
4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삼소굴 소식	명 성	극락선원
6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순용	세계사
7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학 림	여시아문
8	유식입문	이지수	시공사
9	禪 이야기	일 지	운주사
10	믿음으로 피운 연꽃	천태종	열린불교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태양처럼 솟아나소서(성우스님 지음)=파계사 주지 성우스님이 쓴 임산부가 부처님께 올리는 발원문집. 한 생명을 잉태하고부터 임산부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며, 부처님께 기원하는 글이다. 스님은 이 땅에 슬기롭고 복덕이 구족한 많은 이들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며 이 글을 썼다. 〈토방, 4천원〉



▲정병조의 불교강좌(정병조 지음)=기존 입문서와 같은 단순한 교리설명이나 해설보다는 저자 나름의 철학적 사고로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특색. 불교사상의 정리와 함께 21세기에 맞는 불교의 역할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민족사 6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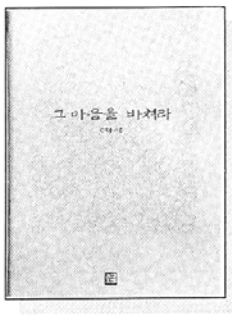
▲일본안의 백제문화(임동권 지음)=일본의 문화를 한국민속학의 관점에서 현지조사한 연구서. 임동권 중앙대 명예교수(71·문화재위원)는 고대 백제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불교문화를 비롯, 문화 예술 학술 농경 의약 등 제반 기술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규장각 1만2천원〉



▲빛을 가진 아이들(이가을 지음)=서울 한강근교에 있는 동편초등학교 4학년 벌반 아이들과 '검은 별'(우한별) 선생님, 교장선생님 등이 엮어가는 참교육 이야기. 제1회 조계종 불교문학 현상공모에서 동화를 당선시킨 아동문학가 이가을씨가 쓴 동화책. 〈대원사 4천5백원〉

금강경 독송회 출판 도서 연화의숲
전화)02-742-0172
팩스)02-766-9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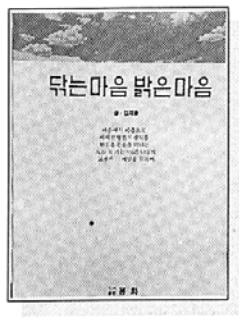
마음공부 베스트 4



그 마음을 바쳐라

마음은 어디에 머루르며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무명(無明)에 떨어진 모든 부처님들의 발(發)!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위하여.

김재웅 법사 지음 신국판/267쪽/7,500원



닦는마음 밝은마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길 가는 모든 이(道人)들의 고통과 해탈을 위하여.

김재웅 법사 지음 신국판/293쪽/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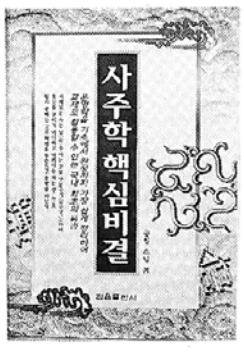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재웅 법사 지음 신국판/273쪽/6,000원

분별은 바치고 마은은 밝은 곳으로 금강경 독송회 엮음 신국판/260쪽/6,000원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화/제/의/신/간/
운명의 카운트 - 다운 시대가 왔다



신국판/값2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관음출판사 전화 : 921-8434 팩스 : 929-3470

"춤으로 '이뭣고' 화두풀어요"

심가영-가희 자매 '慾' 주제 창작무 발표 3월6일 문예회관

독실한 불자 전통무용가 심가영 가희 자매(40·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 이수자)가 지난 90년에 이어 두번째 개인무용발표회를 갖는다. 오는 3월 6일 저녁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1부 전통춤 부분에서는 화려하고 발디딤의 기교가 돋보이는 태평무, 살풀이춤 등을 맡고 동생 가희씨가 안무한 '욕'은 자신의 본성을 찾는 불교화두 '이뭣고'를 주제로 구성됐다. 40분간 펼쳐질 '욕'은 처음에는 이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극락의 세계, 무념무상의 정토로 인간이면 누구나 그리워하는 이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 다음엔 인간 세상. 인간의 오욕 칠정이 부대끼고 부딪치는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 환희 슬픔 이별 고통 등 모든 희로애락이 표현된다. 그 다음 장은 모든 삶들이 얽혀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과 부조화, 그속에서 고뇌하는 나 자신이 그려진다. 마지막 장은 수행을 통해 드디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해가는 중에 번뇌가 소멸되고 평정의 세계에 도달하는 과정이 잔잔하게 펼쳐진다.

어렸을 때부터 무용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온 이들 쌍둥이 자매는 틈만 나면 절에 가 기도와 참선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정도로 독실한 불심을 지니고 있다. 태평무 인간문화재 강선영선생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인 이들은 "춤으로써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표현해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세계에 인도하고 싶다"는 원력또한 지극하다.

불교계에서 초청하는 공연은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동참한다는 심가영·가희씨는 오는 부처님오신날에도 어린이무용단과 함께 봉축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02)400-3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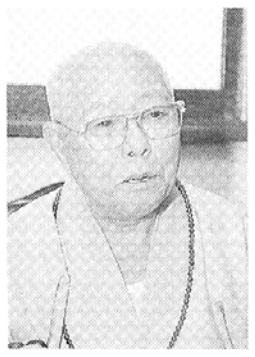
이경숙 기자



◇ '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삼은 창작무 '慾'의 공연장면. 3월6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마음으로 범음범패 배우고 펼쳐야"

내달 7일부터 짓소리 공개강의 송암스님



"짓소리를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전수시켰으나 범음대에서 이렇게 공개특강을 갖기는 처음입니다. 이 강의가 범패강의로는 생애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데 많이 동참해 불교전통을 잇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범패 인간문화재 박송암스님(82·봉원사)이 내달 7일부터 봉원사 범음대학에서 1년 코스로 매주 한차례씩 짓소리 강의를 갖는다. 짓소리는 상주권공재(2~3년) 각배재(1~2년) 영산재(2~3년) 안채비(1~2년) 공부를 마친, 그러니까 10년 이상 범패공부를 한 사람이 비로소 배울수 있는 고급코스로, 한곡이 30분~1시간 가까이 연주되는 규모가 크고 장엄한 소리기 때문에 익히기 힘들다.

지난해 안채비 특강에 이어 짓소리강의로 불교의식 전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송암스님은 "범음범패는 배울때부터 부처님께 음성공양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도 예전 우리 배울때보다 열의들이 적은 것 같아요"라며 전수에는 사제 쌍방의 열의와 노력이 첫째라고 강조했다.

원래 3일간 펼쳐졌던 영산재는 해방후 1일로 축소돼 진행되고 있다. 3일영산재가 시행된 때는 꼭 한번. 지난 68년, 당시 문공부와 서울대가 영산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수집목적으로 실시했던 것. 영산재의 원형을 이 시대인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3일영산재를 다시 재현하는 일은 송암스님의 깊은 원력이다.

마침 태고종이 최근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하여 오는 10월 영산재를 '국재(國齋)'로서 봉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송암스님 등 인간문화재 스님들이 총출연하는 3일영산재의 장엄한 영산회상을 보게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숙〉

"초봄 수놓는 찬불하모니"

송언합창단 3월4일 음성공양의 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주최 대구필하모니 협연

영남권 유일의 남녀혼성 합창단인 송언합창단(단장 이천환)이 오는 3월 4일 저녁 7시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2회 음성공양의 밤'을 개최한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이 주최하고 대구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이번 공연에는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의 선시에 곡을 붙인 '무상게송' '빈손' '임의 소식' 등 선법가와 부처님일대기를 표현한 교성곡 '붓다의 노래'가 선보여 초봄의 밤하늘을 싱그럽게 수 놓는다. 또한 한마음 어린이합창단이 찬조출연해 '붓다의 메아리'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을 부른다.

남성 30여명을 포함 80여명으로 구성된 송언합창단은 매주 1~2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에서 합창모임을 가져왔으며 지난 1992년 창단이래 진주예술회관 큰법회, 안양예술회관 불교음악제 등 각 법회와 무대에서 그 기량을 발휘하며 음성공양에 헌신해 오고 있다. (053)426-2779

대구=이윤호 기자

어른들에게도 꿈을주는 아동극

동쪽나라, '꽃들에게…' '오세암'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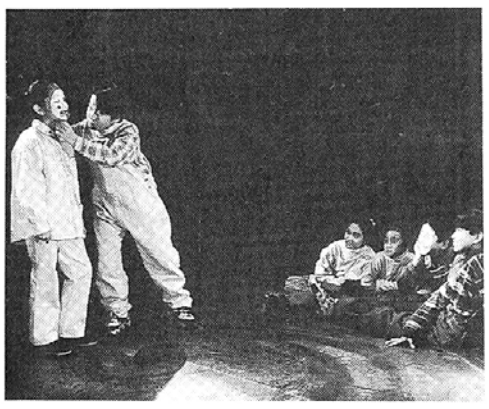
28일~3월2일 두레극장

국내유일의 순수 어린이전문극단 동쪽나라(대표 김형균)는 오는 28일부터 3월2일까지 문화예술관 서울 두레극장(3673-2965)에서 아동극 '꽃들에게 희망을'과 인형극 '오세암'을 공연한다.

'꽃들에게 희망을'은 영육과 정민 두 남매가 간간히 들려주는 예쁜 애벌레와 나비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일상에 지쳐 어릴 적 꿈을 잃어버리고 바쁘게만 살아가는 어른들의 닫힌 마음에 따스한 향기를 불어넣는다는 내용. '오세암'은 천진한 다섯살바기 소년 길손과 장님 누나 감이의 맑고 아름다운 마음이 부처님에게로 닿아 길손은 부처님이 되고 감이는 눈을 뜬다는 내용의 인형극이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는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재미를, 피곤과 짜증으로 어두워진 어른들의 눈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감동을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유홍영 길해연 이미희씨가 연출하고 김현철 지예슬 임지혜양등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이번 아동극은 오전 11시 오후 2시 공연된다. (02)263-8438



◇어린이들이 꾸미는 동화같은 무대 '꽃들에게 희망을'의 한 장면. 상상력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하는 이 극은 어린이들의 천진한 동심을 통해 어른들 세계까지 엿보게 한다.

남양주유적 무료관광

남양주시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매주 금요일 시청버스를 이용한 무료관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양주의 이름있는 문화유적인 봉선사 흥국사 수종사 등 명찰과 홍릉, 다산정약용선생유적지 등 30여곳의 유적을 돌아보는 이번 답사는 시민들의 호응이 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0346)592-0665

▶ 동부코스=광내궁집-모란미술관-이순지묘-묘적사-구선도방-유량선생묘-수종사-다산유적지-한확선생시도비-수석리토성-조말생묘비

▶ 서부코스=홍유릉-사릉-양지향나무-광릉-봉선사대종-순강원-봉영사-여경구 가옥-흥국사대웅보전-덕흥대원군묘-불암사-불암산호랑이 은거동굴

불심시심 〈78〉

지는 꽃 쓸지 않다

相送門前路 (상송문전로)	보내고 맞이하는 문 앞 길
落火人不掃 (낙화인불소)	지는 꽃 사람들 쓸지 않건만
春風便有情 (춘풍변유정)	봄바람은 그래도 정이 있어서
吹散溪邊草 (취산계변초)	시냇가 풀 언덕에 불어보낸다

위 시는 허정대사(虛靜大師 1670~1733)가 지은 차홍진사 중익운(次洪進士重益韻)이라 한 시이다. 대사의 법명은 법종(法宗)이고 허정은 그의 당호이고 속성은 전(全)씨이다. 묘향산에서 월저(月渚)대사에게 참학하여 장경을 섭렵하였고, 월저의 수제자인 설암(雪巖)대사에게 참여하여 현지를 듣고 인가를 받았다.

대사는 허정을 단순한 당호로만 삼았던 것이 아니요, 자신의 생활 신조가 바로 허정이었던 것이니, 스스로 일깨운다는 '자경(自警)'이라는 시에서.

굳은 돌처럼 뜻을 지키고
청결한 얼음처럼 정신을 집중
비고 고요함 잘 지켜
물이 맑아지듯(守志堅石 凝神潔水 善保虛精 亦如水澄)

이라 하였으니, 허정은 대사의 신조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사의 시도 이러한 신념으로 일관되어 있다 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대사의 시집의 서문은 바로 이 점을 중시하고 있다.

"대사의 시는 체법이 유순하고 태도가 평담하여 모든 욕심이 다 비었고 모든 이끌림이 다 끊겼다. 인자한 구름이 평화롭고 지혜의 햇살이 선명하니 이것은 어쩌면 성정에서 근원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으니, 시문 자체도 허정의 담담한 그 자체라는 것이다.

위의 시는 이러한 허정의 전형이라 하겠다. 제목이 남의 시에 차운한다 하였기에 인간적 세사의 일단을 노래할 것 같으나, 오히려 봄날의 답답한 한 순간을 노래하고 있다.

나그네를 맞고 보내는 문 앞의 길, 보내고 맞이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길이니 외길임이 분명하고, 외길이기에 오히려 말끔하게 쓸려 있어야 일상사에 맞는 삶이다. 그러하건만 쓸지 않았다. 물론 꽃잎이기에 그랬다 하지만, 이 자체가 꾸밈이 없는 허정한 스님의 일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은 무정으로 비쳐지게 된다. 그러기에 다음 구에서 봄바람이 오히려 유정으로 표현되었고 그 유정의 정다움이 꽃잎을 이리저리 물아 다소곳이 풀섶에다 감추어 준다. 유정이어야 할 사람은 무정으로 변하고 무정물의 봄바람이 유정으로 변신하였다.

이렇듯 이 시는 전후 두 단락으로 대칭되어 인간적 무정과 자연사물의 유정이 일상적 논리를 뒤엎으면서 산사의 허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자의 의도적 꾸밈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산마을의 정적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이 역시 스님들의 작시적 우월성이라 하겠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석정회 신춘 차례시연

석정원차(茶)회(강주 선혜스님)는 지난 15일 사간동 법련사 문화회관에서 사원차례 의식인 불전헌공차례와 전통생활차의식인 풍류차례를 발표했다. 석정원차회원 및 각 차 관련단체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 선혜스님이 '차례와 절다예법에 관하여' 주제의 문헌발표를 하고 뒤이어 불전헌공차례와 풍류차례의식이 시연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신토불이 방생

우리 강산과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물고기를 방생합시다

- 배달도 해드립니다 -

자라, 잉어, 가물치, 미꾸라지

연 락 처
전 화 : 272-3596~7
Fax : 363-3597
자 택 : 363-7067
휴대폰 : 017-234-359-7
(동대문 광장시장 47호)
은 하 상 회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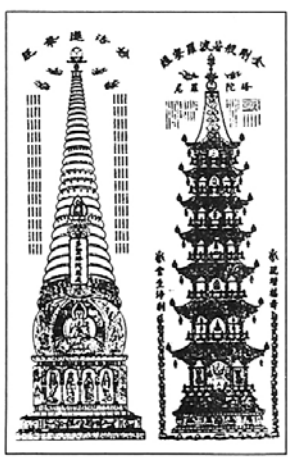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 160㎝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부설 : 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것인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사용하여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 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 스님용 불탑다라니 사용방법책자, 신도용 영험집 책자,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친족현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불멍짓는법 등이 수록된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사용해주시고,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멍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 등을 제시해 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요. 큰힘이 되실 것 입니다.

BBS 지방국 독립채산 움직임

이사회 참여·광고수입 자체사용 등 결의

경리사고 대책위 활동부진 신뢰성 잃어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BBS지방국 임원진은 지난 20일 대구 프린스 호텔서 회의를 열고 지방국 운영의 자율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지방국의 재정자립과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국의 광고수입은 전액 지방국에서 사용돼야 하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특수성과 목적성을 살린 자율적인 지방국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결의했다. 특히 3개 지방국 임원진은 지방국의 이사회 참여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 지방국 개국에 사용된 출자액에 비례해서(6억당 1인의 이사자격 부여) 지방국 운영위원장, 지사장, 그외 1명을 포함하는 총3명에게 이사자격을 부여해 줄것도 촉구했다. 또 현재의 지방국 명칭도 '불교대구방송'에서 지역명이 우선된 '대구불교방송'으로 재조정하고, 지방국 '지사장'의 명칭도 '사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3개 지방국 임원진은 이같은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불교대구방송 사장 법타스님, 운영위원장 설조스님 등을 비롯 불교부산방송의 본부장 박순근씨, 불교광주방송 사장 이상진씨 등 1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교방송 경리사고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영진 전원사퇴등도 촉구했다.

이같은 3개 지방국의 결의문 채택으로 지방국설립시 부터 회자돼 온 독립채산제 운영문제가 다시금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불교방송 경리사고와 함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불교방송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이 사건 1달여가 지난 시점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송병욱 상무의 사표수리에 이어 사장퇴진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선상신)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송병욱 전 상무를 불교방송과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장역시 즉각 퇴진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재감사를 맡은 재단이사회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의 활동이 신뢰성을 잃고 계속 표류할 경우 사태가 어떻게 번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도 팽배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매머드 불교타운 세운다"

부다피아 보은정사

법당·강원·의료·여가시설 등 16개동

경북 울주에…대웅전 공정 50% 진척

사찰회원카드 한장이면 불교신행생활은 물론 의료혜택과 각종 첨단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21세기형 신개념 사찰이 선보인다.

경북 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천곡리에 건립되고 있는 불교종합도량 부다피아 보은정사(주지 초연)가 바로 그곳. 부다피아 보은정사는 5천194평 부지에 2백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행 교육 휴양 복지 문화 영묘장의시설등 16개동의 매머드 종합불교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부다피아 보은정사는 '불교복지시대'를 열겠다는 의욕으로 음악실 취미관 휴게실 문화시설 휴양시설 체육시설에서부터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진료 치료 처치 등의 생활의료 클리닉까지 완벽하게 갖춰진다. 특히 보은정사는 다양한 정보와 여가생활을 위한 위성통신수신, 화상을 통한 통신망을 구축하는 CCTV설치, 광케이블설치, 디지털교환시설, 첨단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편리와 종합적인 사찰제반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데이터뱅크 구축등을 통해 불교정보통신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부다피아 보은정사는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대웅전을 비롯 법륜전 설법전 발심당 조실전 원주실 종각 원융당(종무소)등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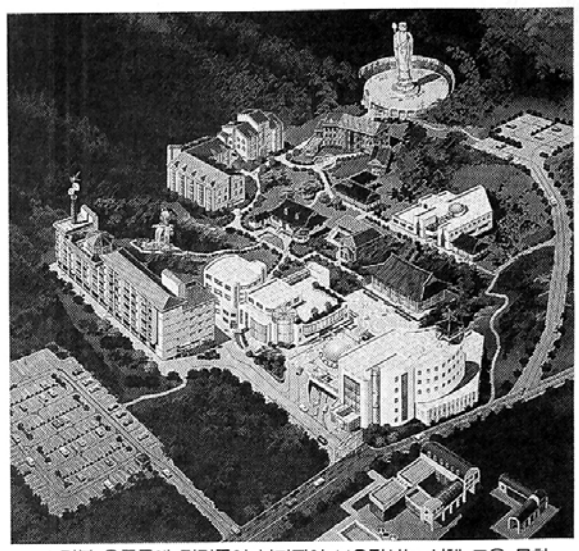
또 스님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불교교리연구와 강습및 포교교육을 위한 강원 선원이 설립된다. 그밖에 시청각교육실 회의실 전시실 영상실 도서관 연구원 수련원등 교육수련공간도 건립한다.

이와함께 불교장의의식 공간으로 시왕루 지장전 연화장원(납골안치당) 등이 건립되고, 원로스님들의 요사체인 일심원과 노인불자용 안락원 그리고 복리후생및 편의공간으로 선육장(사우나 헬스이·미용실 오락실)과 의료시설을 두루갖춘다. 특히 노유자들의 평생 안거실인 일심원과 안락원은 인체공학적설계, 편안한 일상과 진정한 해탈을 극대화시킨 공간과 시설의 배치, 건강을 위한 운동, 의료서비스시스템으로 복된 노후설계를 돕게된다.

주지 초연스님은 "부다피아란 국태민안 평화통일 사회복지를 이루는 불국정토를 뜻한다"고 전제하고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을 최첨단 시설과 다양한 사찰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현해 내고자 부다피아 보은정사를 건립하는 것"이라며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정사의 고문이자 증명법사인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생활과 불교가 하나되는 도량으로 기대되는 만큼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고 이곳에서 불자모두가 용맹심으로 신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원우 기자



◇경북 울주군에 건립중인 부다피아 보은정사는 신행 교육 문화 복지 휴양 장묘 장의시설 등 16개동이 들어서는 종합불교타운이다.



◇ 한국JTS는 지난 15일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둥게스리에서 '수자타 아카데미 준공식'을 가졌다.

한국 JTS '수자타 아카데미' 준공

인도 둥게스리에…학교·병원 등 건립

인도의 문맹퇴치와 빈곤극복 활동을 벌여온 한국JTS(이사장 법륜스님)는 지난 1월 15일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둥게스리에서 '수자타 아카데미'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마하보디소사이어티 부회장, 보드가야대탑 주지를 비롯 각국 스님 50여명과 가야시장등 지역유지 및 한국JTS주최 성지순례 한국인 86명과 주민등 1천2백여명이 참석, 대대적인 지역축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학령전, 초·중등교육기관인 수자타아카데미는 대지 1천2백평에 본관 1개동 부속건물 2개동을 만 3년만에 준공했다. 2층 본관에는 초등학교 全 5개학년과 중학교 1학년, 유치원 3학급 등 총 9개교실에서 5백여명이 교육을 받고있다. 부속건물 2개동에는 병원 도서관 사무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자리잡았다.

법륜스님은 "현재 수자타 아카데미는 법당과 유치원교실이 들어설 2층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학교과정에 상업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위해 식수개발 주택개량 농업용수개발도 진행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JTS는 18일에는 석가족이 처음 지은 절인 파트나시의 아쇼카보드비하드 사원 개원식과 부처님점안식을 봉행했다. 또는 한국JTS는 상카시아 석가족 불교청년회를 위해 절과 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종단소식

동방대 학사 '대구에'

태고학원이사회 확정

태고종 태고학원(이사장 인곡스님)은 지난 18일 총무원 3층 회의실에서 11명 이사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구시 동구 진인동 산1-2의 5만7천여평을 동방대학 학사부지로 최종확정했다.

태고학원은 동방대학의 부지가 대구시로 최종확정됨에따라 설립추진위를 종단에서 본격 가동키로 했다.

종무위원 20명 임명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지난 18일 총무 교무 사회 재무 규찰등 총무원 5개부서를 자문할 신임종단종무위원 20명을 위촉했다. 이날 임명장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무위원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총무원 운영에 종무원들의 의견을 대폭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교리프로 '신설'

불교TV 봄 개편

입춘을 넘긴 방송가에도 봄기운이 피어나고 있다. 불교TV가 오는 3월 17일부터 어린이대상프로그램과 일반인을 위한 교리프로그램 신설을 비롯 외화방영강화, 방송시간 확대등 대폭적인 봄개편을 단행한다. 특히 이번 개편은 불교TV가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명실상부한 영상포교사의 역할수행에 한층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다.

불교TV가 자체제작으로 선보일 프로그램인 '신나는 연꽃동산'(매주 월 오후 4시20분)과 우주를 배경으로 새롭게 각색된 만화영화 '우주소오공'(매주 화·수 오후 4시20분)이 본격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불교의 첫걸음'(매주 월·화 낮 12시)과 '스타체험 우리절 최고'(매주 토 오전 11시10분)등이 새롭게 방송된다.

또한 방송시간이 116시간 10분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불교TV는 매일 오전 8시에 방송을 시작해 평일은 밤 12시35분까지 토요일은 밤 12시 15분까지 일요일에는 새벽 1시까지 방송을 연장하게 됐다.

목탁소리

줄이은 대형행사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대우〉

조계종총무원(원장 월주)이 이달말부터 5월 중순까지 석달 사이에 자비의 탁발(2월 26일), 직할교구 합동 방생법회(4. 9),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일정 미정), 연등축제 전야 대법회(5. 10) 등 1천명에서 5만명의 불자들이 참석하는 4건의 대형행사 개최 계획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는 지난해까지 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해왔으나, 종단협 스스로 "관변단체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한 행사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18일 열린 직할사암주지 간담회에서 발표됐으며, 총무원은 행사 개최의 목적이 '불교세 과시'에 있음을 굳이 숨기려하지 않았다. "불교가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교신도는 많으나 응집력이 적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교인이면서도 정각회 미가입 의원이 많다"고 말해, 이를 행사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대형행사를 통해 불교의 저력을 내외에 과시하겠다는 의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형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힘이 모아진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마음의 일치가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 교구본사에서는 "개혁종단 이후 분담금이 3~4배까지 올랐는데 집행부는 뭘 하느냐"는 원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공동방생법회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일부 주지스님들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리를 큰울림으로 듣지 못한다면 힘의 결집 이전에 작은 내부균열이 먼저 나타나지는 않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호신불 백의 관세음보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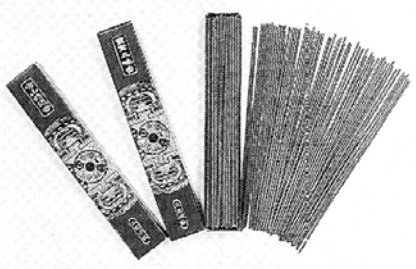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블루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호출 : 012-303-9207 ● 부산대리점 051)467-1934

二軾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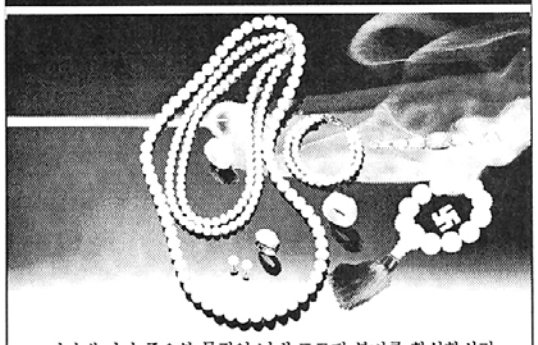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요!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단전호흡 효과)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홧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혀 갑니다. (조금의 차가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도도자기 도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회참회

* 매트의 효능은 옥침대를 대신합니다.
*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사 수두례미에 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大密旨·大總持가 담긴
道도門문功공課과經경

육신보살 宏敎眞人 柳守元 지음
小眞居士 金在昊 編著

도저히 엿볼 수 없는 삼계제천(三界諸天)의 희유한 고급정보와 차원(次元)높은 설법자료가 담긴 옛 진인이 만드신 수도(修道) 비밀의 묘체(妙諦)

(上卷) 原音 原版으로 하는 音響禪
(中卷) 배우기 쉬운 原文對譯版
(下卷) 이야기 註解辭典

고급양장제본/페이스入/定價 상·중·하 98,000원

주문 및 문의
도서출판 淸 靜
우 150-101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楊坪洞 1街 140
電話 : (02)635-2889,671-2389
팩 스 : (02)671-2306
온라인 : 국민은행 049-01-0518-775 청정출판사

종단협

수석부회장-월서스님
사 무 차 장-자월스님



◇월서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월주스님은 17일 오전 조계종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월서스님(서운사 주지), 사무차장에 자월스님(태고종 前총무부장)을 임명하고 사령장을 전달했다. 월주스님은 이 자리에서 두 스님에게 종단간의 화합과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인터뷰 4면〉

현불뉴스

원각사비 보호구조물 가설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 내 대원각사비(보물 제3호)와 원각사 10층석탑을 보호할 보호각 설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3월 대원각사비 보호각 건립에 착공하며, 10층석탑은 이미 보호각을 세우기위해 임시 철구조물을 가설했다.

연면적 17평에 높이 9.45m로 바닥에 화강석 관석을 설치한 정자형태의 대원각사비 보호각은 오는 10월 완공된다. 또 10층석탑에도 새들의 배설물과 눈·비 등을 막을 보호각과 보호망이 함께 설치된다. 대원각사비는 높이 4.9m 너비 1.3m로 지금은 없어진 원각사 창건 경위 등을 새긴 비석으로 조선 성종2년(1471년)에 건립됐으나, 그동안 보호시설이 없어 비둘기 배설물과 산성비 등에 노출돼 조각과 문자가 부식되는 등 수난을 겪어왔다.

대구 경실련 불자모임 창립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내에 불자모임이 탄생한다. 대구 경실련 불교시민회(이하 경불회 준비위원장 강인성)는 지난 12일 반야사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6월15일 진각문화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경불회는 창립 첫해인 올해 △사찰참배문화 개선 △불자의식개혁운동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불회는 불교의 사회개혁운동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주 남산 산불발생

지난 20일 낮 12시 30분경 경주 남산 비파골일대에서 산불이 발생, 21일 10시 현재 약 10ha를 태우고 계속해 번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자 경주경찰서는 헬기 4대와 공무원 마을주민을 동원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바람으로 5시간만에 비파골, 세룡골에 이어 금오산 정상까지 옮겨붙었다. 이날 불은 비파골 인근 마을 주민이 논에서 비닐을 태우다 강한 바람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주시 문화과측은 "다행이 이 지역에는 문화재가 없어 피해는 없었다"며 "21일까지 진화가 안될 경우 인근 문화재 피해도 우려된다"말했다.

3·1절 기획

항일봉기 진원지 제주 법정사 현장

"10만평 성역화…항쟁의식 고취"

'똑 똑 또르륵' 항일운동당시 신호음이었던 목탁소리에 한라산 자락 법정사를 중심으로 나무위 계곡및 바위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33인의 항일항쟁 주역들이 모습을 나타낼 것만 같다.

3·1운동보다 5개월 앞선 항일봉기 진원지 제주도 법정사지. 바로 이곳 10만여평이 성역화된다.

서귀포시(시장 오광협)와 법정사성역화추진위(위원장 이치근)가 진행중인 법정사 성역화사업은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10만여평에 1백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불사이다. 〈관련 인터뷰 4면〉

성역화 사업은 제주 4·3운동때 화재로 전소된 역사의 현장 법정사지를 당시 형태로 복원하여 주민과 참배객들이 정진할 수 있는 기도도량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위령탑도 유불선 3교에 기반하여 스님들과 농민들의 봉기장면을 형상화해 조성한다. 또 위패를 모시는 영각을 건립하여



◇3·1운동보다 5개월 앞선 항일봉기 진원지 법정사 주변 10만여평이 성역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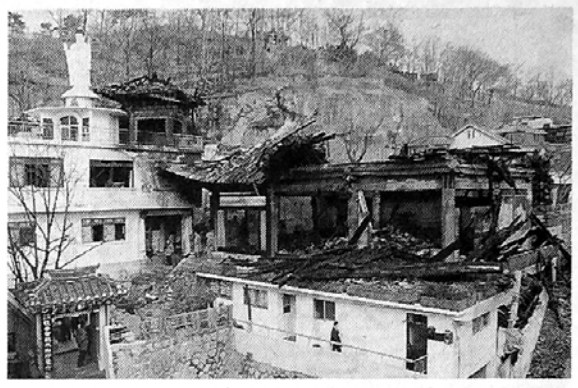
스님·주민 영령위로 영각등 건립
'보천교도 폭도' 비하 역사 재평가

'왜인들을 몰아내어 국권을 회복해야한다'는 격문을 발표한뒤 서귀포 주재소를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납치하며 민족의 독립을 주장한 무장봉기운동이다. 김연일(법정사 주지) 방동화(불교조계종 초대종무원장) 강민수 정구룡 김인수 김용충 장림호 김상언 최태유스님과 행자 김윤옥을 비롯한 승려 13인등 주역 33인과 주민 4백여명이 나섰는데 스님들의 역할이 워낙 커 당시 '방스님 난리'로 불리워졌을 정도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전통불교가 항일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몰고올 파급을 우려하여 3인중 한사람인 박명수씨가 보천교 수사라는 이유로 '보천교도의 폭동'으로 비하시켰었다.

왜곡된 역사를 규명하기위해 1995년 여름 제주도 현지에서 학술토론회가 개최된바 있으며 안후상씨(보조사상연구원 간사)의 '무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는 논문이 지난해 12월 서울대 〈종교학 연구〉(제15집)에 수록되면서 학계에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최근 자료조사및 기본시설계획을 수립한 서귀포시와 추진위는 3월부터 기초작업에 들어간다.

〈제주=김원우 기자〉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에 화재가 발생 대웅전이 소실되는 등 약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관음종 묘각사 누전추정 '불'

지난 14일 밤 10시 40분경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소재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총본산 묘각사에 화재가 발생, 대웅전을 전소시키고 5시간만에 진화됐다.

홍파스님은 "불길이 대웅전내 인등쪽에서 솟았다는 주민들의 진술과 화재발생당시 잠금장치로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누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이날 화재는 64평의 대웅전, 6평의 범종각과 요사채 일부가 불에 타 약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찰방화 예방" 당부
월주스님, 경찰청장에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5일 이필우 서울경찰청장에게 초파일을 앞두고 사찰방화 예방과 장엄물 훼손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월주스님은 총무원을 예방한 이 서울청장에게 지난해 초파일을 앞두고 화계사와 삼성암 등에 이교도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방화가 발생, 큰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대해 이 청장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일선경찰서에 특별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회

'운영규칙' 제정키로

발언 시간·횟수 제한 등 3월 종회서 논의

조계종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지난 19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종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회의진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중앙종회 운영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중앙종회 운영규칙(안)'은 본회의 발언시간(5분) 및 동일의제 발언횟수(2회) 제한, 의결정족수의 하향조정, 위원회 및 예산안과 결산 심사 절차, 종회사무처의 종무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 종회의원의 직권남용금지, 회의장 이탈금지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을 위한 사항, 종법이 미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례에 대한 운영규칙, 또 그동안 관례화했던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효율적인 종회 운영은 물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결정족수의 하향조정, 종회의원의 징계 등 일부 조항은 종헌과 상치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칙은 종법보다는 하위개념이지만 제정되면 종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 규칙은 3월 6~7일 열리는 종회의원 연수에서 논의를 거쳐 3월 25일~29일 열리는 종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 설정스님은 규칙 제정과 관련,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 운영에 기여함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칠보사 노인전용 복지원 상량

사찰직영 첫 실버타운…의료시설등 3개동

칠보사(주지 동호)는 지난 17일 충남 아산에 건립 중인 보문선원 노인전용 복지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 개원될 복지원은 5백여평의 부지에 3층 3개동의 규모로 건립된다. 복지원에는 10여평 규모의 35개 침실외에도 의료실, 휴게실, 식당 등이 들어 설 예정이다. 정부로부터 무료양로원 허가가 나지 않아 당초 방침과는 달리 유료양로원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문선원 복지원은 보리수마을 성라원과는 달리 사찰에서 직영하는 첫 실버타운으로,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실질적인 노인포교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경마장 건설철회" 주장
고고학회, 예정지서 1백여 유적 확인

경주경마장 건설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한국고고학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 정부의 경주 경마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 학회는 성명에서 "경마장 예정지에서 1백곳이 넘는 유적이 확인됐다"면서 "진정한 문화도시에 대한 안목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무모한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문화재관리국은 경주경마장 부지 29만평 가운데 5만여평에 대해 지표조사한 결과 중요 문화유구를 확인함에 따라 오는 3월3일부터 최소 3년이 걸리는 본격적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주체인 마사회는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도시로 경마장 부지를 변경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주시는 경마장 건설이 지난 92년 대선때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확정된데다 마권발매액의 10%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경마장 부지는 신라6부촌의 하나인 습비부 물리촌이 있었던 자리로 신라사회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역촌초등교 졸업식
교회서 치루려다 취소

서울 역촌초등학교(교장 전하찬)가 교회에서 졸업식을 실시하려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졸업식장이 변경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역촌초등학교는 지난 19일 치러진 졸업식을 인근 교회에서 실시하려고 했으나 불자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지난 17일 졸업식장을 학교로 급변경했다.

이에대해 역촌초등학교측은 "추운 날씨관계로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치르려고 했을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학부모들은 "졸업식도 교육과정인 만큼 특정종교 시설에서 졸업식을 치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지난 20일 전두환 노태우 前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방문,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면회 했다. 이날 면회에는 전·노씨의 변호인인 이양우 김유후씨의 안내로 종회의장 설정스님과 수석부의장 법등스님, 정우스님(총무분과위원장) 영담스님(재정분과위원장) 진아스님(호법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회의장단
全·盧씨 면회

면회후 한 스님은 "두 전 직대통령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간직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대해 전씨는 '면회오는 가족들에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위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스님들은 전·노씨에게 불서 10권씩을 전달했다.

스님들은 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종회의원 진관스님도 면회하고 위로했다.

마음

'나'를 쑥 빼어 놓아라

내가 공부을 한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잘했다, 내가 주었다, 내것이다, 나이다 하는 아집·아만·아상·목신을 쑥 빼어 놓아라. '나'가 들어가면 이미 걷힌 것이니 당장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 해도 탁! 넌어선 줄 알아야 제대로 놓는게 된다. 그쯤 되어야 거기에서 생수맛을 볼 수 있고 부와 자가 상봉을 할 수 있다. (한마음선원)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 허리, 다리, 질환및 지방축적 방지와 자세교정에 착용하는 신비의 건강 미용 의류 !!

!! 여성용(모나리자), 남성용(다윗)으로 되어 있고 남자의 경우 소변을 보기에 편리하며, 개인별 정밀측정이므로 허리: 5~6mmHg, 배:6~7mmHg, 허벅지:8~10mmHg, 종아리:13~15mmHg로 부이별 압력분포가 다르며 허리에는 특수코일빔과 특수자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착용시 상상을 초월한 편안함과 상쾌함으로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함!!

◉ 방송 및 신문보도

1. 1996년 7월 14일 "MBC" / 대구문화방송 9시뉴스 "신비의 옷" 방영
2. 1996년 8월 9일 "한국경제신문" / 허리·다리 질환및 부전증, 피로회복, 근육통에 큰 도움을 주는 의류개발
3. 1996년 8월 16일 "대구매일신문" / 디스크 예방, 방지, 다리질환, 피로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
4. 1996년 9월 1일 "가톨릭신문" / 허리, 다리질환, 피로회복, 지방축적방지 탁월
5. 1996년 9월 14일 "매일경제신문" / 압박옷으로 혈액순환 촉진되다.
6. 1996년 10월 6일 "SBS 모닝와이드" / 지방축적방지, 허리, 다리질환
7. 1996년 10월 11일 "매일경제 TV"/ 지방축적방지, 허리, 다리질환, 혈액순환
8. 1996년 10월 14일 "보건신문" / 혈액순환, 피로회복, 허리, 다리질환 개발
9. 1996년 12월 16일 "TBC 좋은 아침입니다" / 허리, 다리질환, 지방축적방지

◉ 의학적 증명

※ 대구 동산병원, 계명의대 정형외과 강창수 교수(박사·과장·학장·의무원장) MBC, TBC, 인터뷰에서 본 제품은 디스크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며 다리관절 보호, 통증, 피로회복, 부전증과 혈액순환에 착용하면 효과가 매우 크다 함!!

※ 대구 동산병원, 계명의대 성형외과 강진성 교수(박사·과장·학장·의무원장)는 혈액순환, 피로회복, 부기가 오는 부전증, 혈관종, 임파종을 예방 치료하며 특히 장시간 걸으면서, 서서, 앉아서, 운동, 직업, 생활, 여행, 임산부에 착용시 효과가 매우 크며 굵어지는 허리, 다리를 예방할 수 있다 함.

※ 착용 대상자

골프·테니스·등산·조깅 등 보행을 많이하는 운동, 서서, 걸으면서, 앉아서 업무, 생활, 여행, 디스크 예방·방지, 허약한 허리, 골반, 다리, 통증피로, 바람, 저림, 근육통, 관절통, 굵은허리 다리, 힘없는 허리 다리, 임파종, 혈관종, 부전증, 조금만 걸어도 허리·다리에 피로를 빨리 느끼며 마비, 부기, 통증, 저림이 오는 분,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고난 후 지방축적 방지와 허리·배·다리에 균형을 상실한 분, 모든 운동후나 일과후 피로회복에, 미연에 예방차원에서도 착용하는 신비의 건강 미용의류!!

● 특허:63833호, 89633호, 특허출원:10978호, 5799호, 8510호

엄마의 손
제 일
HAND OF MOTHER (JAE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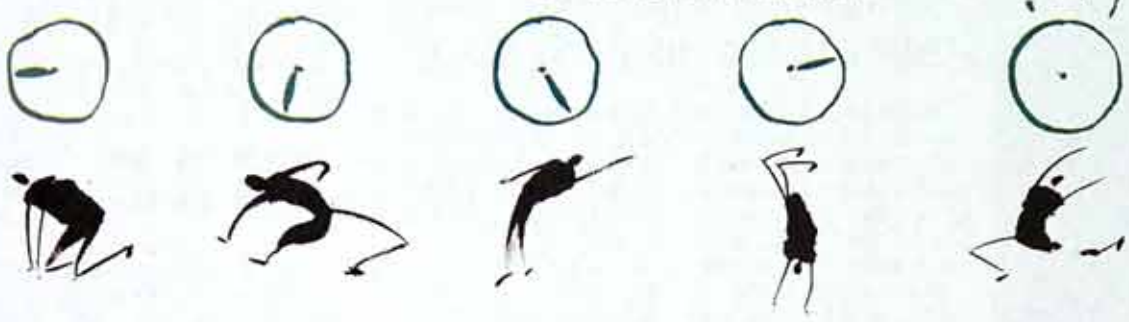
◘ 대구본사 : 대구시 서구 평리5동 1536-1
TEL. (053)566-9226~7, 566-0750~1
FAX. (053)559-9226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삼창프라자 12층 2호
TEL. (02)717-4654~5, 717-4548~9
FAX. (02)717-4655

★저희 엄마의 손에서는 저희 제품을 사업상 취급코자 하시는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점포, 무점포, 가정에서도 가능)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는 조바심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몇십년 동안 1~2㎏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등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제안 ①

불교 다이어트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국판 224쪽/ 학림 지음
여시아문 /값 5,000원

제1장 승가의 생활
제2장 음식물로 다이어트를
제3장 좌변으로 다이어트를
제4장 좌면으로 다이어트를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제8장 요가로 다이어트를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886(영업부), 737-0881(편집부),737-0887(팩스)

btn 불교텔레비전 32
(주) 위동마린투어



크루즈급 초호화 여객선으로 찾아가는 중국 불교성지순례

신심으로 가는 깨침의 길
중국불교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중국불교성지순례

불교TV와 함께 다녀오십시오

불교텔레비전과 중국 최대 현지법인 여행사인 위동마린투어가 국내 최초의 크루즈급 호화여객선으로 모시는 선상여행에는 편안한 여유로움과, 최상의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중국불교 핵심 성지순례 9일 ▶MDS-B7 ₩1,150,000





중국남부 특선성지순례 9일 ▶MDS-S05 ₩1,500,000

불교TV만이 드리는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
- 획기적인 가격
- 여유있는 순례코스
- 국내최초 크루즈급 여객선의 최고 서비스
- 중국 현지 최대 여행사의 넉넉하고 편리한 일정
- 선상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성지순례 비디오테잎 및 성지안내서 무료제공

예약문의
불교텔레비전 사업부 ☎ (02)3270-3471~3
위 동 마 린 투 어 ☎ (02)7 1 1 -9111

생활 속의 불교 (III)

고(苦)이면서 고로만 끝나지 않는 기회

"나쁜 환경이란 사실은 나를 가르치려는 주인공의 다른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 변화에 얽매이고 눌려서 평상심을 잃는 것이 환경 탓일 수 없고 그런 변명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가르치려는 주인공의 배려요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사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아니 지나치다 그렇지 않다 할 것도 없지만 역경계가 닥쳤을 때 공부하는 바가 더 많다. 고로 역경계가 닥치거든 공부의 기회로 알고 넘기도록 해야 한다. 넘기 힘든 고개가 넘고 나면 더 보람된 법이다."

모난 돌을 쪼는데는 정을 쓴다. 속담에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다. 모가 진 돌을 다듬어 용도에 맞춰 쓰려면 정으로 쪼고 갈고 다듬어야 한다. 사람도 그와 같아서 언행이 바르지 못한 경우는 질책을 받게되고 때로는 그보다 더한 형벌로 다스려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원인과 결과의 상호 관련성이 분명하게 내 탓으로 여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환경 탓, 남의 탓을 하게된다.

더구나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식으로 좋은 일은 당연한 것으로 나쁜 일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만사가 제 욕심대로 잘 풀려 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노래한다. 가령 지출보다 수입이 늘 많을 때, 남보다 넓은 주택 깨끗한 환경이 갖춰 졌을 때 가족이 항시 건강하고 나도 쾌락을 즐길 만큼 건강할 때, 식탁이 언제나 기름지고 풍성할 때, 남의 기림을 받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 갈 때, … 우리는 그 일을 감사하게 여기든 당연시하든 간에 나의 삶은 행복하다는 느낌에 젖는다. 장미빛 인생을 노래한다.

반면에 뜻하는 대로 일이 풀려나가질 않고 삶이 자꾸만 삭막해질 때 우리는 슬픔에 젖고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벗어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난·질병·시련 따위가 때로는 미리 주문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찾아들 때 우리는 비탄에 젖는다. 내게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면서 운명을 비관하기도 한다.



누구나 순경계를 사랑하고 역경계를 싫어한다. 비록 그것이 중생들의 간택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인지상정(人之常情)임엔 틀림없다. 그런 중생심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경계를 남의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 만큼은 안된다. 그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내가 사랑하고 싫어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순경계도 내 탓, 역경계도 내탓이다. 내 식탁이 풍성하지 않은 것도 내 탓이요, 내가 남의 기림을 받지 못하는 것도 내 탓이다. 내게 닥친 질병·환난·시련도 다 내 탓이다. 누가 나를 헐뜯고 모함했다고 할 경우 그것이 비방·모함한 사람에겐 죄업이 되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은 나의 탓이다. 내가 있음으로서 그런 일도 생긴 것이다.

순경계·역경계는 밖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안으로 부터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오든 자기 자신의 일이다.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경계가 다가온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결정권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과거의 원인이 오늘의 결과를 낳듯이 경계에 부딪힌 순간의 선택은 자신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러기에 경계는 순경계든 역경계든 다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해 내는 오늘의 호기(好機)가 되는 것이다. 더 나은 삶,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발돋움할 찬스인 것이다. 그래서 역경계는 고(苦)이지만 고로 끝나버리지 않을 고마운 기회가 된다. 해탈의 열매를 얻게할 밑거름이 된다.

협찬 : 김용기 · 김계순